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BULLETIN



고분자 기술이 유전자 치료제로

—

삼양은
다양한 치료제에
적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로
미래를 주도할
신약을 연구합니다



생활의 잠재력을 깨웁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꿉니다

SAMYANG
SINCE 1924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 03_교우회 소식
- 05_하반기 상임이사회
- 06_정기교연전
- 12_골프교연전
- 18_수상자 선정회의
- 19_회장단 회의
- 20_교우 인터뷰
- 24_교우 동정
- 28_교우 기부
- 29_교우 활동
- 30_교우 기고
- 38_학번별 소식
- 54_경영대 120주년
- 57_98학번 패밀리데이
- 58_모교 소식
- 62_교우 신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보 호상 2025 통권 제125호 Vol.47

발행일 2025년 10월 31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발행인 이동섭
편집인 양정인
인쇄 (주)보림에스앤피 02-2263-4934
주소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고대 교우회관 310호)
전화 02-922-3762
팩스 02-922-3763
이메일 kubs@kubs.or.kr
홈페이지 www.kubs.or.kr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가격 3,000원

학습이 성장을 만들고, AI가 경영을 바꿉니다.

교육의 깊이를 넓히는 **LXP**
 회사 맞춤형 AI로 업무를 자동화하는 **RAG 솔루션**
 디유넷은 디지털 전환의 두 축을 모두 제공합니다.

**에듀테크
전문회사**

**IT솔루션
전문가그룹**

**인공지능(AI)
Provider**



Edutech B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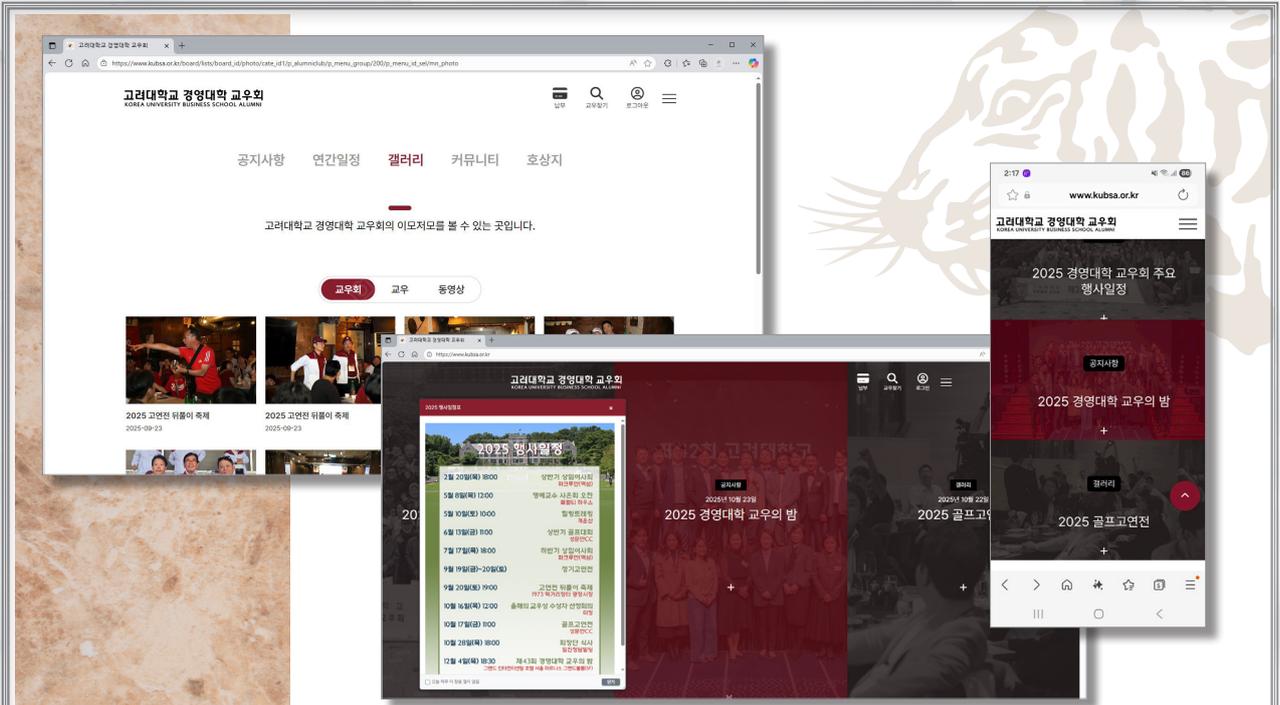
“
 온라인 교육 솔루션 기반
 실시간 온라인 교육시스템 및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 제공
 ”

IT Solution BIZ

“
 기업, 공공기관, 협회 등
 다양한 고객의 Needs에 맞춘
 IT서비스 제공
 ”

**AI Service
& Solution BIZ**

“
 AI 인프라 서비스 및
 AI 에이전트 컨설팅
 AI-MSP Solution
 RAG Solution & Experience
 ”



경영대 교우회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www.kubsa.or.kr

경영대 교우회 홈페이지(www.kubsa.or.kr)를 첫 오픈했던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새롭게 단장했다.

지난 1월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9월 말에 마무리된 리뉴얼 홈페이지는 PC, 모바일로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반응형 웹' 시스템을 적용했고 홈페이지에서 연회비, 행사 참가비 등을 쉽게 카드 결제하도록 결제기능도 추가했다.

홈페이지 UI를 트렌드에 맞게 재구성해 메인화면의 시각적인 집중도를 높여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빼

고 행사 공지와 주요 소식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2011년 구축한 홈페이지는 당시 웹환경에 맞게 설계되어서 모바일 접속이 불편하고 해상도 높은 사진 업로드나 게시물 등록에 지장이 있었다. 새 홈페이지는 현재 기준에 맞게 웹표준, 웹호환성을 높여 불편 없이 게시물을 등록하고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새단장을 마친 교우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교우들의 활동과 모임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제 43 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의 밤에
교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목) 18:3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 (5F)



2025년 하반기 상임이사회 개최

7월 17일(목) 오후 6시 역삼동 파크루안

7월 17일(목) 오후 6시 역삼동 소재 파크루안에서 <2025년 하반기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상임이사회는 매년 10월에 열렸지만, 올해는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해 진행했다.

이동섭(경영89) 교수회장은 “집중 호우로 굿은 날씨 속에 참석해주신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영대 교수회는 여러분의 성원 속에 나날이 번창하고 있으며 상반기 행사들을 성황리에 치렀다. 하반기에도 여러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교우의 밤 행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참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며 2025년 마지막 행사에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도록 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했다.

해외 출장으로 불참한 김연수 학장을 대신해 나현승(경영91) 교무부학장의 학사보고가

있었다. 나현승 부학장은 8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경영대 학생이 참여하는 Imagination Contest와 9월에 열릴 포럼을 언급하며 “경영대 120주년을 기념하여 두 번에 걸친 60주년을 돌아보고 세 번째 60주년을 향한 포부를 펼치는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평국(경영89) 부회장은 하반기 행사계획, 재무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현재 구축중인 새 홈페이지에 분담금, 참가비 결제 기능과 반응형 웹 기능을 추가하여 교우들이 모바일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도록 편리하고 실용성 있게 제작 중임을 밝혔다. 새 홈페이지는 9월 말에 오픈했다.

이어서 신임 부회장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동섭 교수회장은 “경영대 교수회에 열정을 가진 분들이 새롭게 부회장으로 위

촉됐다. 전통을 잇는 유익한 교우회가 되도록 열심히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회장으로 위촉된 10명의 교우들 중 이날 참석한 7명의 교우들 한 명, 한 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장을 전달받은 교우는 92학번 이지철, 93학번 김경민, 김현수, 유석민, 안병원, 95학번 신명석, 03학번 이승주 교우다.

이번 상임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제3조, 제18조 회칙개정이었다. 제3조 본회의의 사무국장소인 교수회관 408호에서 회칙 개정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408호를 삭제한 것과 제18조 12월 중에 열리는 정기총회는 결산이 완료된 후 1월~3월 중, 회장이 소집하는 날짜에 총회를 개최할 것을 의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35명의 교우들이 참석했다.





2025 정기고연전 개최

야구, 농구, 럭비 승리로 3승 2패 고려대 승

정기 고연전 60주년, 환갑 맞아

경기결과			
	야구	9:5	승
	빙구	6:0	패
	농구	57:48	승
	럭비	21:19	승
	축구	0:2	패

고려대와 연세대의
정기 친선경기대회의 열정과 화합

연세대 주최로
9월 19일(금), 20일(토) 양일간 열려

첫날 19일(금) 오전 10시 목동야구장에서 개막식과 함께 정기고연전이 시작됐다. 개막식에서 운동섭 연세대 총장은 “연세와 고려, 고려와 연세는 영원한 맞수이자 한 세기 넘게 우정을 다져온 든든한 동지”라며 “오늘은 고려대와 연세대가 하나로 모여,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고 함께 승자가 되는 날”라고 전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정기 고연전은 젊음과 열정, 그리고 우정과 화합을 상징하는 양교의 대표적 축제”라며 “오늘 양교 선수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후회 없는 경기를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년 정기고연전은 9월 19일 오전 11시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시작으로, 오후 2시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빙구 경기를, 오후 5시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농구 경기를 진행했다. 둘째 날인 20일 오전 11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럭비 경기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축구 경기를 진행했다.

정기고연전은 1925년 보성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정구 대결을 시작으로 올해로 100주년, 1965년 5개 종목이 정기전으로 자리잡은지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고려대는 올해 고연전을 기점으로 통산 전적 21승 20패 11무로 연세대를 앞섰다.

· 야구 | 9:5로 승리, 빗속에서 투지 빛났다 

개막식 후, 연세대 운동섭 총장의 시구로 야구 경기가 시작됐다. 작년 완봉승을 이끌었던 정원진(체교23)이 2회말 연세대에 1점을 허용했지만 3회초 풀카운트에서 공민서의 적시타로 1점을, 새내기 성민수의 대담한 플레이로 1점을 추가해 역전했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에 2점을 내주며 다시 밀리는듯 했지만 6회초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계투 김태양(연세대)의 제구가 불안정해지고 유정택(체교22)의 플라이로 안민성(체교22)이 홈으로 들어오면서 3:3 동점을, 진현재(체교24)의 안타로 4:3으로 역전시켰다. 7회초 만루 상황에서 강민우(체교23)의 안타로 대량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 7:3으로 점수차를 벌려놓았고 진현재의 희생타로 1점을, 9회초에 만루에서 밀어내기로 1점을 보태 9:3으로 연세대를 압도했다. 9회말 연세대가 2점을 얻으며 추격했지만 9:5로 마무리하며 고려대가 여유롭게 정기고연전의 첫 승을 가져갔다.

· 빙구 | 0:6로 뼈아픈 패배, 최선을 다한 선수들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빙구 경기가 시작됐다. 경기시작부터 이무영(체교23)과 허민준(체교23)의 슈팅이 이어지며 강한 공세로 연세대를 몰아붙였지만 2피리어드에서 0:0의 치열한 신경전을 깨고 이승재(연세대)와 임재우(연세대)에게 실점하면서 연세대가 경기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다. 최성순(체교23)의 페널티로 수적 열세에 놓인 고려대는 연세대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공유찬(연세대)에게 실점을 허용했고 골리 전종훈(체교20)이 계속되는 1대1 상황을 잘 방어했지만 강무경(연세대)과 김지환(연세대)에게 또다시 점수를 내줬다. 고려대는 여러번의 파워플레이 기회를 가져왔음에도 득점하지 못했다. 마지막 3피리어드에서는 예민해진 상황속에 연속된 거친 바디체킹이 주먹다툼으로 이어져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다. 종료 50여 초를 남기고 연세대에 또다시 실점하여 0:6. 아쉬운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 농구 | 57:48로 승리, 모든 쿼터를 압도하다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농구 경기가 시작됐다. 1쿼터 시작부터 문유현(체교23), 양종윤(체교25), 유민수(체교23)의 3점 슛과 이동준(체교23)의 자유투 2구 모두 성공하면서 11점 차로 앞서며 여유롭게 출발했다. 갈길 바쁜 연세대가 추격해 왔지만 벌어진 점수 차를 좁히지 못했다. 2쿼터에서도 점수가 좁혀질 때면 새내기 양종윤의 활약으로 두 자릿수 점수차를 유지하며 연세대를 따돌렸다. 3쿼터에서는 김승우(연세대)가 첫 3점슛을 성공시키며 득점의 물꼬를 텃지만 고려대의 두터운 수비에 연세대의 공격이 번번히 실패하며 44:31로 3쿼터가 마무리됐다. 4쿼터에서는 6점차까지 추격해 가며 연세대의 공격선이 살아난 듯했지만 심주언(체교24)의 레이업슛과 이건희(체교22)의 자유투 성공으로 고려대 승리에 뼈기를 박았다. 최종스코어 57:48. 작년 3점차 패배의 아쉬움을 깨끗이 씻었다. 고려대 첫승을 올렸던 야구부가 경기 종료후 달려 나와 승리의 기쁨을 함께했다.

· 럭비 | 21:19로 승리, 초반 강한 압박으로 승리 이끌다

20일(토) 오전 11시에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럭비 경기가 2년 만에 열렸다. 송재영(체교24)이 초반 위기를 잘 막아냈고 오동호(체교24)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 첫번째 트라이를 성공시켜 단숨에 분위기를 고려대로 가져왔다. 이어 이문규(체교22)가 컨버전 킥으로 득점해 7:0. 첫 트라이 성공한지 5분도 안되서 스क्रम으로 공을 얻어낸 오동호와 김원주(체교23)의 트라이가 성공했다. 연세대의 공격이 시작됐지만 고려대



의 탄탄한 수비에 가로막혀 전반 내내 고전했다. 페널티를 얻어낸 연세대는 최규락(연세대)이 힘겹게 첫 트라이를 기록하며 21:7로 전반전을 마쳤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연세대가 공세를 퍼부었다. 연세대는 고려대 진영에서 연속되는 몰(maul)로 두번째 트라이를 성공시키며 살아나기 시작했다. 고려대는 거친 몸싸움과 태클로 지친 상황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오른쪽 사이드로 돌파하는 연세대 선수에게 트라이와 컨버전 득점을 허용해 21:19. 턱밀까지 추격해 왔지만, 휘슬이 울리며 경기가 종료됐다.

· 축구 | 판정 논란 속, 0:2로 아쉬운 패배

오후 2시에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축구 경기가 시작됐다. 연세대는 초반부터 몰이붙이며 고려대를 압박했다. 양지섭(체교23)이 태클에 걸려 넘어졌지만 파울로 인정받지 못했고, 흘러나온 공으로 장현빈(연세대)에게 선취골을 내줬다. 이후 김전태수(체교24)의 슈팅과 김민석(체교24)의 1대1 상황에서의 슈팅 등 모두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장현빈이 송준희(체교23) 태클에 걸려 넘어진 것이 고려대 파울로 인정되 고려대 진영에서 강하게 항의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채 그대로 경기를 진행했고 박건희(연세대)가 페널티킥으로 득점해 연세대가 0:2로 앞서갔다. 이후에도 연세대 선수 팔에 공을 맞았음에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판정 논란 속에서도 고려대 선수들은 끝까지 투지를 보여줬지만 결국 0:2로 패배했다.







후배 여러분 사랑합니다!!

참살이길은 정기전 후 고려대 승리의 소식과 기쁨을 안고 안암동으로 돌아온 학생들로 붐볐으며 참살이길 곳곳에서는 후배내리사랑 주점 행사가 펼쳐졌다. 거리마다 경기장의 열기와 함성을 옮겨놓은 듯 뜨거웠다. 눈만 마주치면 고대생이든 연대생이든 가릴 것 없이 어깨동무하며 민족의 아리아를 함께 부르는 등 경쟁의 순간을 잊고 낭만과 사랑과 열정과 화합으로 어우러진 시간이 됐다.

경영대 교우회는 정기전 마지막 날인 20일(토) 안암동 참살이길에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무료 주점을 열었다. 이동섭(경영89) 경영대 교우회장과 김언수(경영81) 경영대학장, 나현승(경영91) 부학장이 함께하며 정기 고연전의 여운을 나눴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며 행사가 마무리될 때쯤, 91학번 교우의 리더로 2층에 있던 50여 명의 학생들과 교우들이 기타 반주에 맞춰 응원가와 가수 잔나비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주점행사의 백미를 장식했다.

골프
고연전

'우정과 열정 사이' 안암 호랑이와 신촌 독수리의 동문 골프대결

2025년 골프고연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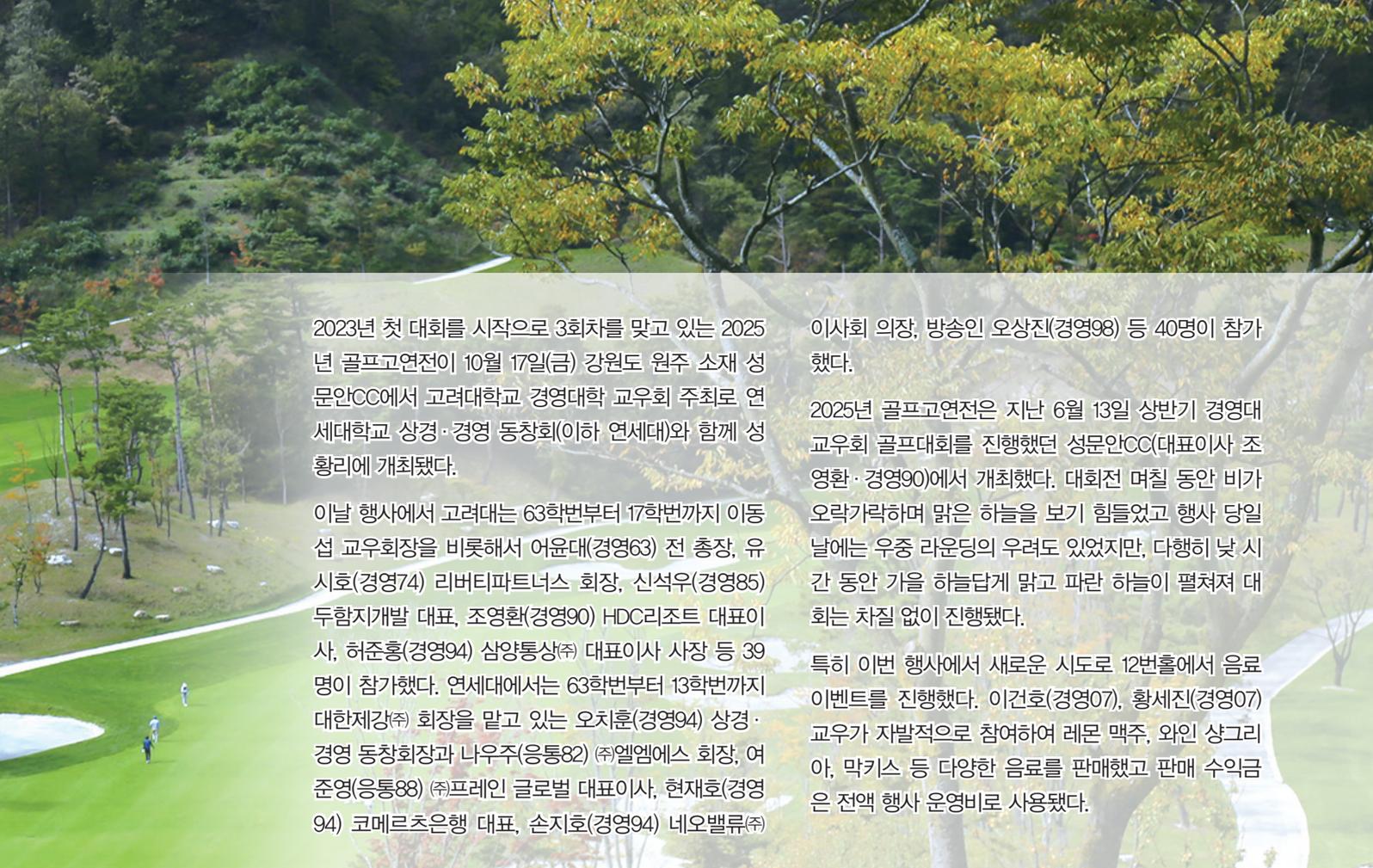
성문안CC



고대 경영대학 교우회
연대 상경경영대학동창회

골프

일시 2025. 10. 17. 금 장소 성문안CC 주최 고려대학교



2023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3회차를 맞고 있는 2025년 골프고연전이 10월 17일(금) 강원도 원주 소재 성문안CC에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주최로 연세대학교 상경·경영 동창회(이하 연세대)와 함께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고려대는 63학번부터 17학번까지 이동섭 교우회장을 비롯해서 어윤대(경영63) 전 총장, 유시호(경영74) 리버티파트너스 회장, 신석우(경영85) 두함지개발 대표, 조영환(경영90) HDC리조트 대표이사, 허준홍(경영94) 삼양통상(주) 대표이사 사장 등 39명이 참가했다. 연세대에서는 63학번부터 13학번까지 대한제강(주) 회장을 맡고 있는 오치훈(경영94) 상경·경영 동창회장과 나우주(응통82) (주)엘엠에스 회장, 여준영(응통88) (주)프레인 글로벌 대표이사, 현재호(경영94) 코메르츠은행 대표, 손지호(경영94) 네오밸류(주)

이사회 의장, 방송인 오상진(경영98) 등 40명이 참가했다.

2025년 골프고연전은 지난 6월 13일 상반기 경영대 교우회 골프대회를 진행했던 성문안CC(대표이사 조영환·경영90)에서 개최했다. 대회전 며칠 동안 비가 오락가락하며 맑은 하늘을 보기 힘들었고 행사 당일 날에는 우중 라운딩의 우려도 있었지만, 다행히 낮 시간 동안 가을 하늘답게 맑고 파란 하늘이 펼쳐져 대회는 차질 없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시도로 12번홀에서 음료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건호(경영07), 황세진(경영07) 교우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레몬 맥주, 와인 상그리아, 막기스 등 다양한 음료를 판매했고 판매 수익금은 전액 행사 운영비로 사용됐다.





골프대회 시상

신페리오 1등	연세대 이규빈(경영99)	68점
신페리오 2등	연세대 김민수(경영82)	69.4점
신페리오 3등	고려대 이승주(경영03)	70.2점









대회의 열기는 만찬장으로 이어졌다. 사회는 안종욱(경영89) 교우와 슈퍼모델 출신의 정이나(가교08) 교우가 맡았다. 이동섭 교우회장은 인사말로 “승부를 떠나 서로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앞으로도 양교 졸업생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고 골프대회를 기점으로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오치훈 연세대학교 상경·경영 동창회장은 “비오다 그치다하는 알 수 없는 날씨의 변덕 속에서 오늘 라운딩을 잘한 것에는 큰 행운이 있었다. 그 행운이 계속 고대와 연대, 연대와 고대의 미래를 밝혀주는 그런 행운으로 지속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시상식 후 서로의 학교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에 AI(ChatGPT, 뮌튼 등)가 답한 내용을 맞추는 ‘전지적 시점 퀴즈’를 진행하여 재학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고 두 학교 졸업생들의 우정을 확인했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승패를 가리기 위해 그룹별 7회 추첨을 진행했는데 당첨된 두 학교의 졸업생들의 타수를 비교한 결과 고려대가 4:3으로 승리해 상금 1,000만 원과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두 학교 졸업생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마련된 골프고연전의 즐거웠던 시간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이날 대회에서 우승한 고려대 교우들이 입실렌티 구호를 외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상금은 패배팀 학교인 연세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찬조해 주신 분들

고려대		고려대	
이동섭(경영89) 교우회장	항남빵 90개	신명식(경영95)	썬크림 90box, 비누 90개
김평국(경영89)	칠레 데일리 와인 88병	신재욱(경영95)	상품권 10만원*5장
서천호(경영89)	현금 30만원	이규원(경영95)	이도곰탕 식사권 10만원*5장
이강훈(경영89)	마스크팩 100개	이승주(경영03)	현금 20만원
이영진(경영89)	현금 50만원	연세대	
오선근(무역90)	플레이팅 도마 100개	김영진(경영75)	테라큐민 6개, 레디큐 80병
심현보(경영93)	골프공 5box	채경아(경영88)	닥터영 센텔라스카 크림 10개
허준홍(경영94)	PING 드라이버 1개	강호찬(경영95)	세인트나인 골프공 12box
김민정(경영95)	컬러 골프공 2box	연세대학교 상경·경영 동창회	연세 곰인형 키링 10개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회의

경영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모교 발전에 기여한 교우에게 수여



2025년 10월 16일(목) 오후 12시 삼성동 해초룩사랑에서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 회의'가 열렸다. 올해의 교우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과 경영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모교 발전에 기여한 교우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심의위원으로 이동섭(경영89) 교우회장, 김평국(경영89) 부회장, 김언수(경영81) 경영대학장, 서희원(경영89) 부회장, 오선근(무역90) 부회장, 이번에 수상자 선정 심의위원으로 새롭게 합류한 장수재(무역93) 신입 감사, 양정인(경영95) 사무국장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2025년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를 심의를 거쳐 후보를 선정했다.

후보에 오른 12명의 교우들을 △기업가 부문 △CEO(전문 경영인) 부문 △공직자 부문 △특별상 부문으로 구분해 심사했고 열정있고 비전이 뚜렷하며 덕망을 겸비한 후보자들을 '2025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오는 12월 4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제43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회장단 만찬

교우회 발전 위한 노력에 감사한 마음... 지속적 발전 기원



경영대 교우회 회장단 만찬 행사가 2025년 10월 28일(화) 저녁 6시에 일진청담빌딩 15층에서 열렸다.

64학번부터 07학번까지 총 25명이 참석한 만찬에는 고려대학교 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자열(경영72) 자문위원, 최철원(무역88) 부회장과 김언수 (경영81) 경영대학장, 이윤주(경영92) 부회장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야경이 보이는 16층 루프탑에서 간단한 리셉션이 열렸고 부회장들간 악수와 함께 인사를 나누는 순서를 가진 뒤 본격적인 만찬 시간을 갖기 위해 15층으로 이동했다. 안종욱(경영89) 교우가 이날 행사의 사회를

맡아 유쾌하게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동섭 회장은 환영사로 “교우회 발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앞으로도 교우회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라고 전했다.

구자열 발전위원장, 김언수 경영대학장, 강동식(경영64) 부회장, 이재동(경영70) 부회장의 인사와 더불어 건배사를 통해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모든 참석자들은 만찬 동안 김평국(경영89) 부회장과 김언수 학장이 찬조한 와인을 나누며 친교 시간을 가졌다.

만찬 행사를 마치며 이동섭 회장이 마련한 떡과 김언수 학장의 경영대 120주년 기념품이 모든 참석자들에게 전달됐다.





Coréana

코리아나 화장품 유 상 옥 회장 상55

Interview



유상옥(상55) 코리아나화장품 회장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원로이다. 아흔을 넘긴 유상옥 회장은 1933년 충청남도 청양 출생으로 1955년도에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상학과에 입학, 1959년도에 졸업했다. 유 회장이 상학과에 입학한 지 올해로 70년이 됐다. 그는 1997년부터 경영대 교우회 부회장을 거쳐 현재는 경영대 교우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경영대 교우회가 출범하고 '경영대학 교우의 밤'을 처음 개최할 때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그는 모교와 경영대 교우회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다. 8월 20일 오전 강남구 신사동 소재 코리아나미술관인 스페이스 씨에서 유상옥 회장을 만나 학교 생활과 창업 이야기, 기업가 정신, 교우회 관련한 말씀을 들어보았다.

Q1. 회장님의 고려대학교 학창시절을 말씀해주세요.

고려대 다닐 당시는 온통 흠길이었어요. 버스가 다니긴 했지만 집이 용두동이어서 걸어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녔지요. 운동회 때는 축구시합도 했었고요. 상과대학에는 좋은 교수님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회계학 교수님, 미국에서 오신 윤병욱 교수님이 기억나네요. 1963년도에 고려대 경영대학원이 처음 생겼고 나는 1964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나를 지도해 주셨던 분이 윤병욱 교수님이었습니다. 또한 유진오 총장님이 졸업생들과 같이 점심을 함께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졸업하고 나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데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 한군데서 오래 있으라고 부탁하셨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업할 때가 기억납니다. 그 당시 은행에 취직하는 것이 인기 있었는데 나도 은행에 지원했지만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도 지원자는 많은데 뽑는 인원은 적었지요. 다른 학교 상학과 다니는 학생들이 몰리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4학년 때 동기였던 최종수가 공인회계사 합격했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간 자격을 따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후에 동아제약 입사하고 주경야독해서 2년 만에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Q2. 6.25사변 이후 고려대학교의 모습은 어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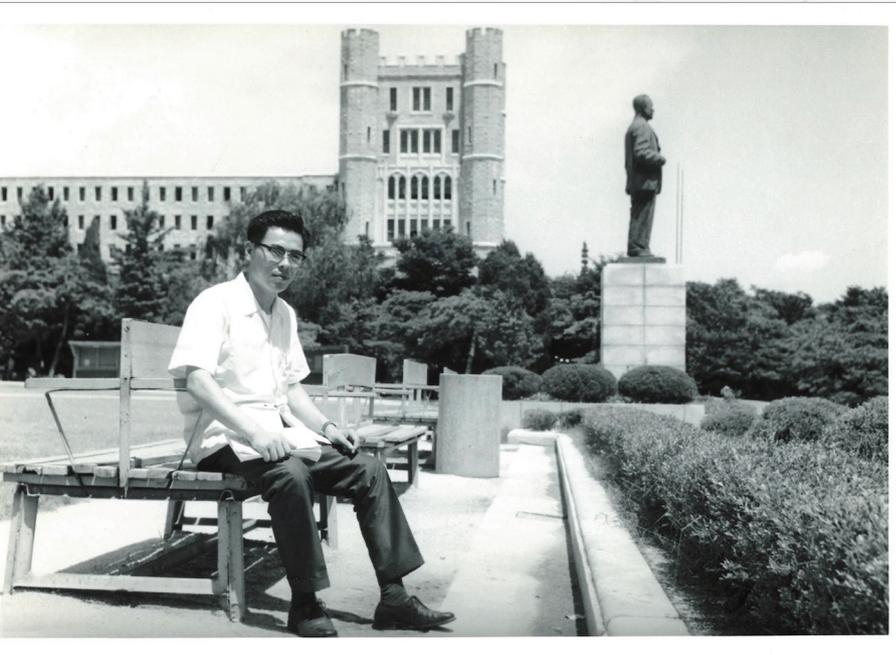
해방되고 혼란이 수습되지도 못한 채 전쟁이 터진 게 내가 중학교 다닐 때였어요. 그 당시 한국은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나는 휴전 이후 경영대학에 진학했고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내가 졸업할 때인 1959년도에는 그나마 상황이 좋아졌지요. 여러 혼란을 거쳐 입학한 동기들중에는 나이가 많은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입학 당시 고려대학교는 본관, 중앙도서관, 서관 정도 있었어요. 학교의 모습은 재건 시대를 맞아 전쟁의 아픔을 딛고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Q3. 회장님께서 입학하시던 1955년도에 경영학과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생겼습니다.

고려대학교는 1946년에 종합대학이 됐죠. 나는 상학과로 입학했지만 내가 입학하던 해에 경영학과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경영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고려대학교에서 한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독일에서 공부하시던 분들이 경영학과 교수님으로 오셨어요.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셨던 분은 김동기 교수님이요 독일에서 시장론, 마케팅을 공부하셨던 분은 송기철 교수님이요 재무론을 공부하셨던 분은 윤병욱 교수님입니다. 특히 윤병욱 교수님의 공이 지대했어요. 윤 교수님은 고려대학교와 경영대학 성장의 초석을 마련하셨습니다.

Q4. 경영대 120주년은 회장님께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요?

경영대는 개교 120년 동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나라의 보탬이 되는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졸업자들이 학교에서의 배움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나아가 사회를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려대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내는 전통 있는 학교로 국내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하고 자신과 사회에 크게 공헌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각 분야에 공헌하는 많은 고대인들이 학교를 빛내주어 같은 고대인으로서 보람을 가집니다.



Q5. 회장님께서 어려운 상황속에서 55세에 창업에 뛰어드셨습니다. 성공하신 비결은 무엇 인가요?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한 우물을 파라'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경영의 기본을 배우고,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55세라는 늦은 나이에도 창업을 결심할 수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눈앞의 성과를 좇는 유혹도 많습니다. 하지만 깊이가 없는 변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분야에서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결국 위기 앞에서 길을 찾습니다.

우리 후배 여러분들은 급하게 여러 길을 찾기보다 한 우물을 깊이 파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여러분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Q6. 말씀 중에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업가 정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가 정신이란 결국 도전과 책임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동아제약에 입사했던 것이 첫사회 생활이었죠. 그곳에서 경영의 기본과 시장의 흐름을 배우며 많은 것을 익혔고, 30년이라는 세월이 회사에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에 새로운 길을 열어야겠다는 꿈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고 코리아나 화장품을 창업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고, 고객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았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한국 화장품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저에게 기업가 정신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길을 찾는 용기, 그리고 사람과 가치를 지키려는 마음. 이 정신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7. 회장님께서 계신 건물에 유물과 그림, 조각상 등 여러 예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고려대학교에 수집하신 소장품을 기증하기도 하셨는데요. 예술작품들은 경영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요?

옛 여인들의 화장품, 미술품 등을 구하기 위해 주말과 출장길에 시간을 내어 인사동, 장안평, 광주, 대구 등 지방은 물론 프랑스, 일본, 중국, 미국 등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한 점 한 점 모으면서 안목을 키우고, 열정을 들였죠. 그러는 와중에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도자기 유물 200점을 기증하고, 모교인 덕수상고 100주년 기념관, 고향 청양에 있는 백제문화체험박물관에 200점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쟁이 30년, 창업자이자 CEO로서 30년, 총 60년 동안 모은 애착을 가진 귀한 유물들을 모두 회사 법인에 기증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



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고려대에 소장품을 기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리아나 화장품 법인 소장 유물과 개인적으로 수집한 유물 114점을 모교인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려대학교 박물관은 훈천시계, 동결도, 분청자인화문태항아리 등의 국보 3점과 보물 4점 등 우리 역사상 중요 문화유산은 물론 김홍도, 정선, 장승업 등의 고회화 작품, 이중섭, 박수근, 권진규 등의 근현대미술작품에 이르기까지 수준 높은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모교 박물관의 위상을 더욱 드높인 것 같아 매우 기뻐합니다. 오히려 저는 저희 컬렉션이 회사 경영보다는 사회에 도움을 주고 환원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가 기증한 유물을 감상하고 와서 한국의 화장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 때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Q8. 경영대학 교우회 출범할 당시에 여러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매년 저희 교우의 밤 행사에 참석하시고 오랜기간 찬조해 주시는 등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는데 기업인으로서 경영대학 교우회에 애정을 갖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우수하고 훌륭한 경영자를 배출하는 최초의 학교를 졸업했다는 자부심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교육, 가르침을 아끼지 않으셨던 교수님들, 같이 수학했던 동문들은 저를 경영자로서 성장하고 이끌어준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고려대에서 석사학위도 취득했습니다.

교우회는 이런 역사와 정신을 이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선배의 경험과 지혜가 후배들에게 전해지고, 후배들의 도전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연결고리입니다. 저는 기업인으로서, 그리고 이 전통을 함께 이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후배들이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영대학이 '대한민국 경영 교육의 뿌리'로서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Q9. 젊은 세대인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늘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요즘 세대는 빠른 변화와 혁신 속에서 살고 있지만, 진정한 혁신은 과거의 지혜 위에 세워질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전통은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검증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후배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것을 쫓는 열정은 유지하되, 그 속에서 반드시 '왜 이 길을 걷는가'라는 본질을 묻고,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옛것을 배우고 지켜야만, 그 위에 진정한 새로움이 탄생합니다.

교우동정



조경식 (경영82)

2025년 7월 2일
조경식 교우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선임됐다.



김기수 (경영85)

2025년 8월 18일
김기수 교우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김광용 (무역89)

2025년 6월 20일
김광용 교우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임명됐다.



강형석 (경영91)

2025년 6월 21일
강형석 교우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임명됐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김명국(경영79) 2025년 10월 18일 딸 예은 양
이승훈(경영79) 2025년 11월 9일 딸 지선 양
민경섭(경영79) 2025년 11월 22일 아들 장홍 군
여용동(경영82) 2025년 10월 12일 딸 윤선 양

김무경(무역89) 2025년 9월 27일 딸 보민 양
이준수(경영13) 2025년 8월 24일 본인 결혼
박상원(경영15), 이진하(경영15)
2025년 9월 13일 본인 결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호용(상53) 2025년 4월 3일 본인 별세
정왕용(경영56) 2024년 9월 25일 본인 별세
이두홍(상59) 2025년 10월 9일 본인 별세
백일천(상60) 2024년 11월 23일 본인 별세
전춘옥(상61) 2025년 8월 27일 본인 별세
이광환(경영67) 2025년 7월 2일 본인 별세
최상영(경영69) 2025년 10월 7일 본인 별세
구자형(경영74) 2025년 9월 14일 본인 별세
배유현(경영76) 2025년 9월 28일 본인 별세
김영한A(경영79) 2025년 8월 30일 모친상
서구원(경영79) 2025년 9월 22일 모친상

정현재(경영79) 2025년 7월 17일 모친상
김종승(경영82) 2025년 8월 25일 모친상
송문섭(경영89) 2025년 7월 30일 부친상
최진선(경영89) 2025년 7월 23일 모친상
민준선(경영90) 2025년 8월 31일 부친상
장원석(경영90) 2025년 9월 30일 부친상
신명석(경영95) 2025년 7월 10일 부친상
이용범(경영97) 2025년 7월 27일 부친상
조현우(경영01) 2025년 8월 12일 부친상
이준민(경영03) 2025년 8월 28일 모친상
이상훈(경영04) 2025년 9월 2일 부친상

임원위촉

부회장 92학번 이지철
93학번 김경민 김현수 김형곤 심현보 유석민
안병원
95학번 신명석 신선화
03학번 이승주
04학번 백철운
07학번 황세진

상임이사 62학번 김중순

‘일본교우회의 대부’ 최상영 영스틸 대표이사 별세



고(故) 최상영 대표이사

경영대 교우회 자문위원인 최상영(경영69) 영스틸 대표이사가 10월 7일 (화) 일본 도쿄에서 향년 77세로 영면했다.

1948년 일본 와카야마에서 재일동포 2세로 출생한 최상영 대표이사는 간사이기쿠인대에서 수영선수로 활약하다가 1969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로 편입해 1973년도에 졸업했다. 졸업 이후 철강무역 회사에 근무한 후, 1992년 영스틸을 다양한 철강 관련 사업을 벌여 왔다. 이후 산업계에서 한국 철강사가 일본에 진출하는 한일무역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2004년 재일동포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해 2009년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재일본 대한체육회장 등의 활동으로 일본에서 민간외교사절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때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함께 2억 엔의 성금을 전달하며 한일 스포츠 교류에 앞장섰다.

1992년부터 일본교우회 회장을 맡아 고려대와 와세다대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교수, 학생들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양교간 협력 관계 구축에 이바지했다. 2003년부터 모교와 교우회 발전을 위해 경영대학 발전기금, 교우회 장학금을 꾸준히 기탁했고, 2024년에는 모교에 10억 8천만 원을 쾌척하여 누적 33억 원을 기부했다. 매년 열리는 경영대 교우회 ‘교우의 밤’에도 전폭적으로 찬조했으며 수영선수 고(故) 조오련(경영72), 박태환 선수를 발굴하고 모교 럭비부 훈련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등 인재 양성에도 힘썼다.

최상영 대표이사는 이와 같은 공로와 업적을 인정받아 2004년 상공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2009년 경영대 교우의 밤에서 ‘올해의 교우상’을, 2018년 개교 113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에서 ‘자랑스런 고대인상’을, 2024년에는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최상영 대표이사의 장례식은 10월 11일 도쿄에서 열렸으며 한국에서는 10월 22일 오전 11시부터 23일 오전 1시까지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서 별도의 고별식을 가졌다.



2009년 올해의교우상 수상



2017년 경영대 교우의 밤당시



2018년 자랑스런 고대인 상수상



교우회관 3층 '신준식 라운지' 헌판 제막식 가져

소중한 나눔을 오래 기리고자 정의 라운지를 신준식 라운지로 명명

2025년 7월 10일 교우회관 3층 정의 라운지에서 신준식 라운지 헌판 제막식을 갖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고려대학교 교우회(회장 승명호)는 신준식(경영73) 경영대 교우회 상임이사의 소중한 나눔을 오래도록 기리고자 교우회관 3층에 있는 라운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정의 라운지를 '신준식 라운지'로 명명했다. 이 공간은 교우 간 만남이 이뤄지고 소통하는 '사랑방'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신준식 교우는 교우 장학회에서 10년 가까이 이사로, 교우회 장학위원으로도 오랜 기간 활동했다. 지금까지 4,600만 원의 장학금을 개인 명의로 기탁했고 KU PRIDE CLUB에도 꾸준히 기부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10억 원을 교우 장학회에 기부했다. 교우 장학회에 기탁한 기부금은 재학생 장학금으로, 교우회 학술상 포상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준식 교우는 “모교에 기부할 수 있어서 영광인데 이렇게 훌륭한 라운지에 제 이름을 남기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며 “평범한 사람인 저의 기부와 이에 대한 교우회의 배려가 자극제가 되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하셔서 모교와 장학재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 교우와 가족을 비롯하여 승명호 교우회장, 한운상(경영78) 고려대학교 교우회 수석부회장 등 교우회 관계자들과 경영73동기회 김순배 총무, 신 교우의 고등학교 동기 등 30여 명이 참석해 신 교우의 뜻을 기리고 헌판 제막식을 축하했다.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 일본 와세다대 명예박사 학위 받아

와세다대 “한일 교류 증진에 큰 역할” ...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 등 참석해 축하

구자열(경영72·고려대학교 발전위원장) LS그룹 이사회 의장이 한일 교류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일본 와세다대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와세다대는 10월 18일 도쿄 신주쿠구 와세다대 아이즈야이치기념박물관에서 열린 ‘와세다대 명예박사 학위 증정식’에서 구 의장에게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와세다대는 “구 의장은 한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린 기업인 이자 한일 간 학술 교류에 큰 역할을 해 명예박사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승명호(무역74) 회장이 고려대 교우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축하했다. 이 외에도 김동원 총장과 정진택 전 총장 등 고려대 인사들과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경영72) 삼양그룹 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구 의장은 1978년 LG상사(현 LX인터내셔널) 평사원으로 입사했고, LS전선 회장, LS그룹 회장을 지내며 LS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냈다. 2021년 제31대 한국무역협회 회장

을 맡으며 양국 기업인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다. 구 의장은 “저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는 고려대와 와세다대 간 신뢰와 교류를 상징하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더 큰 사명감으로 한일 양국의 활발한 교류와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나카 아이지 와세다대 총장은 “구 의장은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공헌의 와세다’를 지향하는 본교에 하나의 본보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와 와세다대는 1973년 교류 협정을 체결했고, 교수진·학생 간 인적·학문적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와세다대는 사회 전반에 공로를 남긴 인물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고(故)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빌 게이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등이 이 학위를 받았다. 국내에선 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고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 회장 등이 받았다.

2025년 10월 18일자 한국일보 기사 발췌



삼성 KPMG 교우회, '후배사랑' 담아 고려대에 3억 원 쾌척

2017년 경영대학 장학금 지원 시작 ... 꾸준히 발전기금 기탁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6월 19일(목) 오후 3시, 본관 1층 총장실에서 기부 약정식을 가졌다. 삼성KPMG 고려대 교우회가 모교에 발전기금 3억 원 기부를 약정했다.

기부금은 고려대 출신으로 현재 삼성KPMG에 재직 중인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것이다. 이 가운데 1억 원은 구승회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출연했고, 나머지 2억 원은 교우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KPMG 구승회 부회장(경영82)을 비롯해 양승열 대표(경영83), 염승훈 부대표(경영86), 장영내 부대표(경영87), 한상일 부대표(경영90), 김민규 부대표(경영91), 최연택 상무(경영03)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학교 측에서는 김동원 총장과 전재욱 대외협력처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삼성KPMG 고려대 교우회는 2017년 경영대학 장학금

지원을 시작으로, 2022년 정진초장학금 기부 등 꾸준히 발전기금을 기탁해왔다. 이번 기부는 고려대 기부 캠페인 'Circle for Miracle'의 16호로 등록되어 선순환의 가치를 실현하는 또 하나의 뜻깊은 사례가 됐다.

구승회 부회장은 “고려대에서 배운 지식과 인연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며 “이번 기부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U Circle for Miracle은 “우리의 힘은 나보다 강하다”는 슬로건 아래, 학과·학번·동아리 등 공통된 소속이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교우들이 모여 함께 기부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체의 힘을 통해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기부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5년 6월 20일 커뮤니케이션팀 기사 발췌



천영석 트위니 대표, '경영전략' 수업에서 특강 진행



지난 10월 2일(목), LG-POSCO관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영석(경영00) 교우의 CEO 특강이 열렸다.

천영석 대표는 쌍둥이 형 천홍석(전기전자전파공00) 대표와 함께 2015년 자율주행 물류로봇 기업 트위니(Twinny)를 창업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재학 시절에는 진로와 적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충분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으로 강연의 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사람 중심의 경영'을 강조하며,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비롯해 물류 창고용 오더피킹 자율주행 로봇이 시장을 선도하기까지 겪어온 시행착오를 진솔하게 전했다. 또한 고려대 경영학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이 실제 창업 후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언급하며, "수업에서 배운 이론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살아 있는 지식이 된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특강의 절반 이상을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며 소통에 힘썼다. 학생들은 자율주행 기술, 창업, 기업 운영 등 다양한 주제로 질문을 이어가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강이 끝난 뒤에도 많은 학생들이 줄을 서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건넸다. 그중에는 적극적으로 취업 의지를 보이며 이력서를 전한 학생도 있었고, 트위니에 투자하고 싶다면 연락처를 요청한 학생도 있었다.

이번 특강은 재학생들에게는 값진 영감의 시간이므로, 천 대표에게도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 되었다.

웰 다잉 시대



황인강

상·문협 정책개발위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다. 최초로 만들어 낸 사람이 누구인지 참 묘한 말임에 틀림없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듯 모를 듯하다. 수궁이 가면서도 구분 짓기가 애매하다. 시대에 따라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정답일 수 있다.

50여 년 전만해도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팔십까지 살아계시면 장수하였다고 온 마을에서 자랑거리로 여겼다. 팔순 잔치를 하여 친인척을 초청하여 축하잔치를 벌인다. 1970년대부터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여 고회를 맞이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났다. 그때까지 환갑이나 칠순 잔치를 성대하게 거행하는 것이 예사였다. 이제는 의학의 발달로 장수의 비결인 영양가 좋은 음식과 일반화된 건강기능식품, 운동 등으로 100세 시대라 공언한 지도 꽤 오래되었다. 널리 알려진 유명 인사나 출중하게 활약하던 분들의 부고 소식을 간혹 신문지상에서 본다.

근래 직장에서 근무했던 상사나 동료의 부모나 장인 장모의 연세가 '90 몇 세'라고 표기되어 부고를 받는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르신들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뚜렷한 현상이다. 그만큼 전에 비해 장수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백세 넘은 분의

부고는 별로 없다. 역시 팔십 대에서 구십대 사이의 어르신들의 별세 소식을 많이 듣게 된다. 그 나이를 보면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단한 천수를 누리다가 돌아가시는구나 하고 감탄을 한다. 얼마 있으면 백 몇 살이라고 나올 날도 멀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장수한 분들에게 존경과 축하를 보낸다. 하지만 감탄은 하면서도 가족이나 의료진의 고통과 시련이 얼마나 컸을까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최선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치료하는 것이 의무다. 하지만 가족이나 자식들이 당할 고통도 생각해 보아야 할 현상이,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한순간이라도 간절히 생명을 연장하기를 바라는 가족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어차피 돌아가실 상황에 직면하면 모든 수단과 비용을 동원하여 얼마간의 연장을 해본다.

결국 돌아가시게 되어 양자 간에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족 간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자식으로서 불효로 비쳐질 수도 있고 부부간의 애정이나 상대방의 사회적 신분에도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대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경우,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보는 것도 가벼운 고통이 아니다. 고통을 적게 하여 편안한 최후를 최소화시켜드리는 것이 가족들이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복잡한 상황으로 가기 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자녀와 배우자, 친척 친지들 간에 여러 의견이 있음으로 해서 결론 내기가 어려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의료계에서 전부터 죽음에 임박하여 정책적으로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최종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망 없는 연장보조 조치를 하지 않는 내용이다. 그런 의학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강구책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고통을 줄인 최후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의 의향에 따라 실행하므로 다른 삼자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 의향서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약 150만 명이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한다. 어느 날 집사람이 의향서를 작성하여 국립연명관리기관에 제출했다고 했다. 아내의 결단에 감복하여 나도 며칠 후 달려가서 설명을 듣고 제출했다. 오랜 동안 망설이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근래에 이르러서야 결단을 했다. 제출하고 나니 생명의 귀중함을 느낀다. 열심히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다. 허무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연명치료로 가족과 자녀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적게 주려는 애뜻한 마음의 발로가 아닌가.

생명의 귀중함과 깨끗한 끝맺음의 거룩함도 일말의 가족애에서 나온 마음쓰임이 아닐까. 좋은 세상 삶에서 끝을 마무리 잘하고 떠나는 것도 가치 있는 표본이라 할 것 같다. 언제부터인가 편안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은 더 필요하다고 느낀다. 깨어있는 일부사람들이 well-being을 부르짖는 현실이지만 더 앞서가는 사람들의 well-dying에도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자는 캠페인은 거룩한 인간애의 호소로 들린다.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가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의 결과라고 한다면, 생의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한 번쯤 신중하게 숙고해 보는 것도 생명의 고귀함을 느껴보는 자세가 아니겠는가.

고려대학교를 사랑합니다



고(故) 전 춘 옥

상61·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회계학 명예교수·수필가

저는 61학번, 경영대학 상학과 졸업생입니다. 생의 마지막인 이 순간, 절절히 동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명부터 또 고려대가 독특한 학풍과 ‘자유·정의·진리’라는 교육목표, 고대정신의 기틀을 다진, 그리고 전체적인 기초를 쌓고 또 강의와 실천으로 보여주신 교수님, 교가 작시자, 작곡자 세 분이 큰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초대 총장은 제가 입학하기전 돌아가셨기 때문에 직접 뵈을 수 없었으나 유진오 총장과 조지훈 교수 그리고 교가 작곡자는 동시대를 살았고, 조지훈 교수는 제가 졸업하던 1968년에 영면하셨지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인촌 선생님은 일제 해방 후 국호를 결정할 때 「고려공화국」으로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신 분입니다. 「고려」는 한국사에서 통일국가로 국제적으로 국가 위상을 확고히 한 통일국가 KOREA를 생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그냥 평범한 교명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2, 3, 4대 총장이셨던 유진오 교수는 당시로는 법조계의 가장 촉망받는 분이지만 대학정신과 대학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분입니다. 고대정신, 고대의 사명을 총괄 기획하신 분이시죠. 교훈은 자유·정의·진리로 결정하시고 구교가를 신교가로 바꾸는 용단을 내리신 분입니다. 원래 신교가 작시자는 위당 정인보 선생님이었습니다. 위당은 우리나라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노래를 작시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전쟁(6.25전쟁)때 납북되어 돌아오시지 못한 분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때 유진오 총장이 신교가 작시자로 조지훈 교수를 찾은 것은 고려대의 행운이었습니다. 조지훈 교수가 어떤 인격자입니까? 고교시절에는 그분의 승무와 낙화를 애송했으며 대학 때는 그의 지조론에 매료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시 시론 강의 중 교내 스피커에서 전황보도가 전달되고 학생들이 동요하자 의연하게 30분간 나의 고별인사를 들으라고 분위기를 안정시켰습니다. 그 강의 핵심이 바로 “죽음을 공부하라”였습니다. 옳게 죽고, 바르게 죽고, 떳떳이 죽는다는 것을 강조하신 분입니다. 군사 정권이 들어서자 고려대에 무기한 휴업령이 내려진 주된 사유가 바로 조지훈 교수의 말씀이 그를 정치교수로 보고 그런 조치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훈 교수는 재직시 <사퇴 이유서>를 써서 들고 다녔던 분입니다. 학생들이 하루빨리 학업을 이어가게 하는 최선의 방안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으로 생각하신 분입니다. 군사 정권의 휴업령의 철폐에 본인을 제물로 생각하신 분입니다. 눈물겹습니다.

조지훈 교수가 교가 작곡자로 윤이상 선생을 추천한 것은 고려대의 더 큰 행운이었죠. 유진오 총장의 허락을 받아 작곡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윤이상 작곡자는 최종으로 세 작품을 총장 공관에서 황덕한 교무위원 앞에서 실제 연주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대학측 요구와 음악가로서 교가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는 작곡자입니다. 그분은 고대 교가를 작곡하는 영광을 느끼고 조지훈 교수의 청탁을 쾌히 승낙합니다.

교가에 들어가야 할 고려대 교가의 본질은 ①고상하고 함축적일 것, ②고대 전통인 힘을 표현할 것, ③작시자의 가사 내용을 충분히 배려할 것 ④한국적인 정취가 떠오르게 할 것이 작곡자에게 바라는 학교 측의 바람이었습니다. 이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세 가지 교가를 작곡하시고 유진오 총장 댁에서 보직 교수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자신이 세 곡을 모두 부른 다음, 지금의 교가가 가장 좋다고 평가받은 곡입니다. 유진오 총장은 물론 참석 교무위원 등 보직자 모두가 큰 박수로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선택된 교가에 담긴 내용을 작곡자 윤이상은 학교가 요구한 첫 번째, 두 번째 요구 즉, 고상하고 함축적이고 고대 전통인 힘에 치중될 것이며 네 번째 요구, 즉 한국적인 정취가 떠오르게 하는 요구에는 미약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심한 작곡자가 있을까? 3곡을 작곡한 음악인 윤이상. 그래서 고대정신과 교육 이념 등 고대 현대화, 대학 위상을 이끈 세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인촌 김성수가 그 밑바탕을 깔았고 유진오 총장이 종합적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훈 교수가 고대정신을 글로, 행동으로 보여준 분입니다. 작곡자 윤이상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고려대학의 동문이 된 것이 어찌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고려대학교!!

이 원고는 전춘옥 교우께서 8월 25일에 작성하여 본회에 전달한 글이며 교우께서는 8월 27일에 작고하셨습니다.

보스니아의,

사라예보 희망터널

Tunnel of Hope

김종순
경영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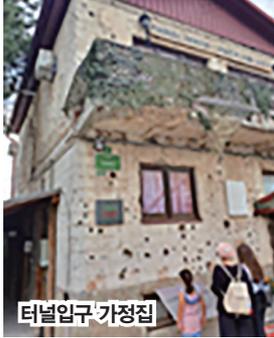


산등성이에서 본 사라예보

산의 정상쯤 왔을까? 안내자는 차를 세웠다. 큰 바위 주위에는 먼저 온 여행객들이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군이 사라예보 시내를 둘러싼 4곳의 산꼭대기에 진을 치고 포위 공격을 한 곳이다.



오늘은 희망터널에 가는 날이다. 이 터널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의 수도 사라예보(Sarajevo)에 있다. 안내자는 산을 향해 가고 있다. 크고 작은 돌을 바닥에 깔아 자동차가 몹시 흔들린다. 좁은 길로 계속 달리는데 그는 말이 없다. 희망터널에 대한 설명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의외였다. 오르막을 오르니 포장된 도로가 나타났다. 이제야 편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볼 수 있었다. 집도 나무도 풀도 보인다. 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부터 아래로 집들이 줄을 이어 웅기종기 마을을 이뤘고, 그 사이 사이에 하얀 비석으로 둘러싸인 묘지도 보였다. 집을 지나면 묘지가 나타나고, 또 집을 지나가면 묘지가 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내전에 희생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터넬입구 가정집



터넬 만든 사람들



크 당시 정치인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9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6개의 연방구성원이 “남슬라브의 땅”이란 뜻으로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탄생했으며 이 왕국은 제2차 대전 중이던 1941년까지 지속됐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꿨다. “파르티잔” 게릴라 부대를 조직해 나치에 대항한 요시프 브르즈 티토가 총리 겸 대통령으로 국가를 통치했다. 티토는 소련의 간섭을 피해 개방정책을 시도해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소득수준과 경제력을 자랑했다. 1980년 티토 대통령이 사망하자 연방공화국 내에서 각 민족들이 독립을 요구했다. 1991년 6월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연방을 탈퇴하고 독립을 선언하자, 유고연방을 주도한 세르비아는 독립을 반대하면서 크로아티아를 침공해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발발했다. 1992년 보스니아도 독립을 선언해, 세르비아는 보스니아를 침공했고 “보스니아 내부에서도 세르비아계가 반란을 일으켜” 내전은 확대됐다.

세르비아군은 산(山) 정상에 탱크를 배치해 시내를 향해 포격했고, 사라예보 시내 곳곳에 저격수를 배치해 거리의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총알을 쏟아부었다. 1992년부터 시작된 내전이 1995년 12월 미국의 데이튼(Dayton)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 도시는 약 4년간 세르비아에 포위 봉쇄되었다. 시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구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즉시 총살당했다. 또 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집안으로 쳐들어와 총을 쏘았다고 한다. 세르비아군의 목표물은 어느 누군가의 특정 인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르비아 사람이 아니면 모두 적이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시민들은 대항할 총도 없었고, 훈련된 병사도 없었다. 어제까지 바로 이웃에 살았던 이웃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과 외모, 종교,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끔찍하게 총을 쏘아댔다. 파괴된 건물은 그들이 세운 재산이고 그들의 생활 근거지였다.

이 도시의 “그르 바치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세르비아군은 보스니아계의 여성들을 집단 강간하고, 임신한 여성들을 수용소에 가두어 낙태를 못하게 했다. 이러한 일은 보스니아계의 인종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이었고, 강제로 세르비아의 자식을 낳게 했다. 약 2만여 명의 여성들이 피해자였다. 두드러진 참상은 이것만이 아니다. 안내자는 나의 노트에다 SREBREN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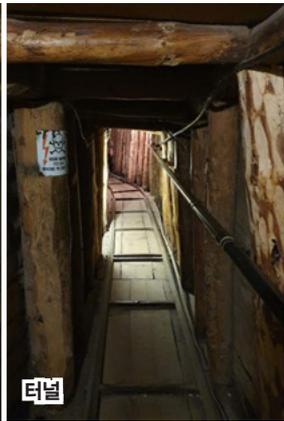
July 11th1995, more 8,000 Killed in 3Days이라 써 놓고 힘들게 말을 이어 나갔다. 우리가 내려다보고 있는 아랫마을 “스레브테니 차”에서 세르비아군이 3일 동안 아이 어른 모두 8천여 명의 시민을 죽였다는 말이다. 나는 멍해졌다. 무슨 말로써 이 기막힌 사실에 응답을 할 수가 있겠나, 아무리 명분 없는 전쟁은 없다 하더라도 모든 전쟁이 정당하지는 않지 않는가, 이 내전은 조직적으로 “인종 학살, 강간”과 같은 전쟁범죄가 벌어졌고, 이 비극적 참상은 서방세계에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해 미국과 NATO가 개입하고, 유엔은 1992년 5월 세르비아에 대해 전면적인 금수조치, 항공봉쇄,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조치했지만, 세르비아는 휴전에 동의하지 않았고 전쟁을 계속해 나갔다. 전쟁이 가진 야만성과 비인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 전쟁은 인간을 인간이 아닌 악마로 변화시켰다.

이런 비극에는 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다. 6세기경 남(南)슬라브족이 발칸반도로 이주했고 13세기 무렵에는 게르만족과 슬라브족이 이주해,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르, 보스니아, 세르비아와 같은 공국이 형성되었다. 14세기 이후 오스만이 이 지역을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알바니아계가 많이 유입되어 알바니아계의 인구가 증가했다. 한 지역에서 3개의 종교, 로마가톨릭, 그리스정교, 이슬람교와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슬라브, 비잔틴 등의 여러 민족이 혼합되어 살고 있었다. 한 나라 안에서 각자 다른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니, 서로 간에 불신과 갈등이 뿌리 깊게 내렸다. 또 제2차 대전 때 나치의 침공으로 유고 왕국이 단 11일 만에 패망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크로아티아가 연방의 병력소집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크로아티아에서는 반(反) 유고연방 조직, “우스타사(USTA)”가 전쟁 중 세르비아계를 무자비하게 학살해 40만여 명이상이 희생되었다. 이로인해 세르비아의 민족은 더 결집됐고, 더 강한 민족성이 형성됐다. 나는 산등성이에서 마을로 내려와 희망터넬에 왔다.

수도 사라예보는 약 4년간 세르비아에 포위 봉쇄당했다. 유엔이 지휘하는 지역인 국제공항과 세르비아군의 점령지점인 시내를 연결하여 희망터넬을 통해 도심 주민이 필요한 구호물자를 공급해 줬다. 이 희망터넬은 1993년 3월에 보스니아 육군 사령관의 감독 아래 시작되어 그해 6월 30일에 완공, 7월 1일부터 사용됐다.



대통령 의자



터널



사용한 장비들



세르비아 포위작전 라인 밖에 있는 야생풀과 잡초가 우거진 어느 한 가정집을 터널 입구로 정하고, 다른 쪽은 사라예보 공항 활주로 5m 밑으로부터 시작했다. 숙련된 인력, 도구, 재료로 손과 곡괭이로, 서로 정 반대쪽에서 땅을 파들어 갔다. 육군과 시민들의 도움도 받는다. 이 터널은 높이가 1.6m, 길이가 800m이다. 원유수송관이 설치되어 전기와 케이블이(독일이 기증) 설치되어 외부 세상과 연결되었다. 물, 음식, 구호물자, 무기, 신문, 환자들을 실어 나르고, 일부는 탈출도 감행했다. 터널 안에는 환풍기가 없어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야만 했다.

터널 입구 벽면에는 터널을 건설한 사람들과 그 당시 정치지도자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고, 굴속으로 들어갈 때는 푸른색 의자(대통령 의자)에 앉아 의자를 밀면 터널에 설치된 철로에 바퀴가 굴러간다는 설명이다. 나는 등을 구부리고 굴속으로 들어가면서 내부의 시설물들을 눈여겨보았다. 지름이 15cm의 둥근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천장에도 서까래가 쳐져 있었다. 굴속을 빠져나오면서 허리를 펴고 긴 숨을 쉬었다. 전쟁이 가진 야만성과 비인간성, 삶과 죽음에 이르는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 노력의 한계, 또 어떻게 이 터널이 세르비아 군에게 발견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1961년 노벨상 수상자인 보스니아의 작가 이보 안드리치(Ivo Andrić)는 그의 장편소설 '드리나 강의 다리'에서, 오스만이 보스니아를 통치했을 때 "죄인을 나무 막대기에 꼬챙이처럼 꿰어, 높이 메달아 두어, 아직도 살아 숨을 쉬고 있는 남자는 터키놈들 터키놈들...." 하면서 죽어 갔고, 그 시체는 개들에게 던져지며 터키인들의 잔혹성을 이렇게 묘사했다. 역사와 인간의 운명은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데, 사람과 사람의 인과응보가 민족과 민족 간에는 더 참혹하게 나타난다는 무서운 역사에 몸서리가 났다. 이 내전은 400여 년 전에 터키인이 보스니아에 가한 고통을 세르비아가 터키인에게 되갚아 주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도 6.25란 전쟁을 겪은 나라라 외국인들이 우리 내전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걱정이 되었다. 이리하여 사라예보의 인구 15만 이상이 희생되었고, 수 많은 난민들이 생겼다. 안내자는 그 당시 통신원으로 근무해 업무상 여러 차례 이 터널에 다녔고, 밤낮으로 들리는 포격 소리에 잠을 잘 수 없었지만 그는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나는 전쟁을 겪어내고 이 비극에서 새로운 희망과 평화를 이루어 낸 사라예보 사람들을 생각하며 공항으로 갔다. 참으로 우울한 여행이었다.





김진하
상66·시인

님

하늘이 푸르고
바람이 살살 뺨을 간질이는
오늘같은 날에는
그대와 차 한잔을 하고싶소.

마음이 따뜻하고 살가운 님
그대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은은한 미소가 번집니다.

엄마처럼 따뜻하고
누님처럼 너그러운 마음
스쳐가는 바람결에도
그대 생각으로 흐뭇합니다.

맑은 하늘
쨍하고 햇살 터지는 소리에
그댄줄 알고 깜짝 놀라
슬슬한 웃음을 지어봅니다.

멧새 한 마리
퍼들꺽 날아 오르고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이
가슴속을 후비고 지나갑니다.



61 총무 이채영

초암회(서초동 모임) ●●●

서초지역에 거주하던 회원들이 연초에 연회비를 내고 부부동반으로 홀수달 셋째 화요일에 만나는 독특한 모임이다. 하지만 회원들의 지방 이주, 지병과 고령화로 회원이 감소하고 부부동반 없이 스틱모임으로 바뀌면서 적당한 모임 장소 확보가 어려워 장소를 옮겨 다니고 있다. 정의철 회장과 김성희, 김순구, 김승현, 강승열, 성영일, 이복성, 정기성, 조일규, 채규학, 최창규 등의 회원이 참석하고 있다. 7월 15일에 이어 9월 16일 모임에서는 별세한 전준옥 회원의 명복을 빌고 모임을 진행했다. 다음 모임은 11월 18일에 갖는다



초암회

백두산 모임 ●●●

2011년 '경영대 입학 50주년 및 회원 칠순기념'으로 박준성, 이준원 동기회장이 추진한 백두산 탐방 행사에 동참했던 27명 회원들이 백두산 서파 정상에 오른 7월 7일 정오를 기념하여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행사를 주관했던 등산모임 사목회의 박인우 회장의 행사 동참을 위해 격문으로 "학교는 선택할 수 있어도 동창은 선택할 수 없다"는 정신에 따라, 2012년 대마도, 2016년 장강 크루즈로 이어졌고, 팔순기념 북파 코스의 백두산 등정 계획은 코로나 사태로 무산됐다. 그럼에도 이들은 돌레길과 청춘 대학 모임으로 이어졌다. 금년에는 공덕역 앞 '몽중헌'에서 참석이 가능한 싱글 회원들만 모여 백두산 천지에서의 추억을 나누었다. 극심한 더위로 인해 박인우 대장 외 박준성, 이준원, 김순구, 박진자, 이근태, 이채영, 최민자 등 역대 최소 회원이 참석했다.



백두산 모임

광암회(강남 모임) ●●●

광암회는 졸업 후, 종로와 중구 그 후 강남이 직장인 회원들도 참여하여 홀수달 둘째 화요일 만남을 갖는 50명이 넘는 규모의 모임이었다. 세월은 어쩔수 없어 고령화와 지방 이주 등으로 회원이 줄어들어 현재 15명 전후의 회원이 사당역 5번출구 앞 '참배나무골 오리집'에서 만나고 있다. 9월 9일에는 김윤장, 박광옥, 박인우, 성영일, 이근태, 이근창, 이병우, 이채영, 하준기, 황인강 등 12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다음 모임도 11월 11일 같은 장소에서 갖는다.



광암회

이월회(양재동 모임) ●●●

골프모임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아범회가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역삼역, 선릉역 등으로 옮겨 다니다가 현재 짝수달 둘째 월요일 낮 12시 30분 양재역 1번출구 앞 '왕삼돈'에서 만나고 있으며 4월 14일에 이어 6월 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만났다. 성영일 회장 외에 김윤장, 김순구, 김근도, 김승헌, 김우찬, 김지균, 박인우, 왕규철, 이병우, 이복성, 이창웅, 이채영, 이춘원, 채갑병 등 14명의 회원들 중 11명 내외가 참석하여 오찬을 함께하며 우의를 다지고 있다. 오찬 비용은 회원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며 부담하고 있다.



이월회

도암회(여의도 모임) ●●●

여의도 지역에 직장을 둔 동기들이 모임을 이어왔으나, 퇴직후 전국으로 거주지가 흩어지게되어 모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김 실회장의 열정적인 회원 관리로 10여 명의 회원이 매월 셋째 금요일 13시에 여의도 리버타워 2층 '하반'에서 만남을 갖고 있다. 9월 19일에 이어 다음 모임은 10월 17일에 갖는다.

사목회 ●●●

졸업 후 2000년대 후반까지 개별적으로 삼사오오 등산을 즐기던 동기들이 2009년 이춘원 동기회장의 제의로 청계산 중점의 '옛골 토성' 훈제오리집에서 만나 등산모임을 만들기로 결정 했다. 정기 산행은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갖기로 하되, 회장은 김주문 회원이 맡기로 하고 명칭을 사목회로 정하여 창립했다. 그 후 박인우 회원이 회장을 이어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회원들의 체력 약화로 등산에서 둘레길이나 대공원 등 평지 걷기로 바꾸어 모임을 갖고 있으며, 지난 9월 18일에는 '우면산 무장애길'을 걷고 사당역 5번출구 앞 '나오리 오리집'에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그간 일부 회원의 요청으로 3목회로 옮겼던 모임을 4목회로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격언에 따라 앞으로도 동기들의 건강을 위해 걷기를 계속할 예정이다.



사목회

청춘대학(برا보 실버모임) ●●●

둘레길 모임, 백두산 탐방, 대마도, 장강 크루즈 등 해외여행 모임, 불자교우회 사찰 순례 모임 등을 통해 뜻을 함께하는 동기들이 매월 만나 노후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고 있으며, 맛집을 찾아 미식을 즐기고, 찾 집을 찾아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있다. 최근에는 1년에 2회 해외여행을 함께하며 견문을 넓히고, 노후생활을 풍요롭게 하고있다. 또한 개별적으로는 최민자 회원이 포르투갈과 지중해 연안을, 이채영 회원이 미국과 캐나다의 서부를 여행했다. 현재 회원은 김순구, 김정자, 박인우, 박준성 박진자, 오영희, 이원태, 이채영, 최민자 등이며, 다음 모임은 10월 16일에 갖기로 하고 일본 아오모리와 하코타테 지역 여행(10월 20일~25일)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했다



청춘대학



62 회장 남영현 / 총무 한상욱 / 감사 송기현

운영위원회 개최 ●●●

9월 11일(목) 역삼동 파크루안에서 19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차기 회장으로 김광한 동기를 총회에서 추천하기로 하였으며, 동기회 가족 나들이 장소로 10월 16일 강화도를 여행하기로 결정. 금년 총회와 송년회를 11월 6일에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번에는 경영62학번동기회 소모임 중, 가장 오래 지속되어 오고 있는 '말수회'를 소개(사진참조)하고자 한다. 이번 달로 317회를 맞이하는 말수회(회장=권동욱 고문)는 매달 말 수요일에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 회원들이 모여 즐겁게 식사를 즐기고 자리를 옮겨 생맥주를 마시면서 즐거운 추억담을 나누면서 하루를 즐기고 있다.



말수회 모임

강화도 가을 나들이 ●●●

계획했던 10월 16일이다. 그동안 비가 오락가락했으며 이날도 작년처럼 굵은 날씨를 걱정했는데 다행히 맑은 가을 날씨가 펼쳐져 즐거운 마음으로 압구정 현대백화점 앞에서 회원과 회원부인이 모여 관광버스를 타고 강화도로 출발했다. 강화도 초지진에 도착하여 맑은 공기를 마시며 관광하고 바다가 보이는 석모도 보문사로 출발했다. 마애불로 유명한 특히 기도빨(?)이 좋은 절이라고 해서 영험한 기운을 받아보고자 모든 회원이 들뜬 마음으로 보문사를 둘러보았다. 석모대교를 나와 강화 갯벌에서 직판장에서 점심을 먹고 연산군의 유배지인 교동도에 도착한 후, 화개정원에 입장하여 단체 사진을 찍은 뒤 연산군의 거처를 관람하고 강화읍에 위치한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공장형 카페에 들러(사진) 커피와 케이크를 먹으면서 환담을 나누고 서울로 돌아가 사당역 근처에서 저녁을 즐기고 하루를 마감했다.



강화도 나들이

64 회장 박재진 / 사무총장 이석훈 / 감사 김인철

6월 등산회 모임 (등산회장 : 권영기, 등산대장 : 고병선) ●●●

- 일시 : 2025년 6월 28일(토)
- 코스 : 3호선 남부터미널 - 우면산 둘레길
- 참가자 : 강동식, 권영기, 김귀분, 고병선, 김광수, 김덕명, 김동훈, 김윤호, 박명익, 박재길, 박태웅, 신준철, 안덕수, 유성준, 이강훈, 이경희, 이용규, 조재복, 황석희, 홍현묵(20명)

습도가 높아 무더위가 시작되는 유월 산자락은 살랑대는 바람과 높이 솟아 우거진 나무 그늘이 햇빛을 가려줘서 걷는데 전혀 무리 없었고, 모처럼 나누는 담소가 어린애들처럼 정답기만 했다. 오랜만에 참가한 황석희 행장과 걷기에 다소 힘들다는 김윤호 회장



6월 등산회 우면산 둘레길 걷기

이 모임에 합류해서 걷는 인원이 늘었고 김귀분 교장님이 준비한 붉은 얼음 수박, 안덕수 회장이 준비해온 노란 오렌지 특식을 나누는 그늘집에는 웃음꽃이 피어 파장을 일으켜 나갔다. 미리 식당에 나와 기다리는 3인의 동기들까지 20명의 동기들은 푸짐한 주꾸미 볶음에 막걸리와 곁들인 피자로 점심 식사를 끝내면서 7월, 8월은 여름 방학이지만 금년은 7월만 쉬고 8월은 계속 산행하자고 권 회장이 제안해서 채택됐다.

7월 백수회 모임 (백수회장 : 지동직, 토요일대장 : 이용규) ●●●

- 일시 : 2025년 7월 5일(토)
- 코스 : 3호선 동대입구역 - 남산 소나무 숲길
- 참가자 : 김광수, 박명익, 박채길, 신준철,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7명)

수시로 내리는 비 때문에 자주 취소되던 백수회 모임이 비 안오는 토요일에 여름 산행을 했다. 30°C가 넘는 여름 남산 소나무 숲길은 다소 부담스러웠던지 평소보다 적은 7명이 참가했다. 동대입구역에서 출발하는 남산길은 초입에 오르기만 하는 코스여서 힘든 것 같지만 오르막이 끝나는 도로에 들어서면 평지 길과 내리막이어서 어렵지 않은 코스다. 7월 모임은 이용규 대장이 준비한 족발은 막걸리 4병으로 부족해서 동기들 가방을 수색해 추가로 찾아내야 한다고 설치던 그늘 파티였다. 점심은 새참을 푸짐하게 먹은 탓에 간단한 물냉면으로 끝내고 헤어졌다.



7월 백수회 남산 소나무 숲길 걷기

8월 등산회 모임 ●●●

- 일시 : 2025년 8월 30일(토)
- 참가자 : 강동식, 고병선, 고충효, 권영기, 김덕명, 김동훈, 김상규, 김윤호, 박명익, 박채길, 박태웅, 송병열, 송철호, 유성준, 이강훈,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 이태경, 정원교, 조재복, 지동직, 현봉길, 홍현목(24명)
- 코스 : 3호선 남부터미널 - 우면산 데크길



8월 등산회 우면산 데크길 걷기

그 많은 비가 아침까지 내리더니 우리가 모이는 시간에는 하늘이 맑고 개어서 여름 산행에 최적이었다. 하늘에는 구름이 꺼 해를 가렸고 젖어있는 초목은 싱그럽기만 했다. 7월을 건너뛴 등산회는 아침에 참석했다 집안일로 되돌아간 이경희 대장까지 24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그늘집에서 박채길 회원이 가져온 잔가지 떡에 차를 마시고 각종 과일과 과자를 나누면서 담소 후 식당에서 기다리는 회원들과 합석, 오랜만에 참석한 현봉길 회장은 십여 년 전 수술 성공 축하로 홍릉 등산회에 식대 찬조를 한 적 있는데 이번 참석에도 10만 원 특별찬조하면서 동기들과 함께 건강 회복을 축하했다.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해도해도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다음으로 미루며 모임의 아쉬움을 달랬다.



9월 등산회 모임 ●●●

- 일시 : 2025년 9월 27일(토)
- 코스 : 올림픽 공원
- 참가자 : 강동식, 고충효, 권영기, 김귀분, 김광수, 김덕명, 김덕환, 김동훈, 박명익, 박재진, 박채길, 박태웅, 송철호, 신준철, 유성준, 이경희, 이석훈, 조재복, 지동직, 홍현목(20명)



9월 등산회 올림픽 공원에서

9월 등산회는 백제 문화제가 열리고 있던 올림픽공원에서 동기 20명이 모여 초가을의 하루를 즐겼다. 오랜만에 참석한 박재진 경영 64 총회장, 송철호 회장이 각각 10만 원씩 등산회 특별 찬조를 하여 모임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햇빛도 한여름 맹위가 한풀 꺾여 누그러졌고 산들거리는 바람과 함께 이제는 숲이 우거진 공원 언덕을 오르면서 노인장들은 품 잡으며 사진 찍고 내려와 점심도 거르고 그늘막 벤치에 자리 잡고 기다리며 김귀분 교장님이 미리 마련해 차려놓은 갖가지 과일과 과자, 막걸리로 건배했다. 결국에는 숯불 불고기로 가득 채운 점심 식사에 추가하는 막걸리는 잘 팔리지 않아 남아돌았다. 끝없이 줄을 서서 공연장 입장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을 뒤로하고 등산회 모임을 끝냈다.

10월 백수회 모임 ●●●

- 일시 : 2025년 10월 4일(토)
- 코스 : 3호선 독립문역 - 안산 둘레길
- 참가자 : 김광수, 김덕명, 김현희, 박명익, 박채길, 신준철, 유명식, 유성준,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11명)



10월 백수회 안산둘레길 걷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초가을 안산은 무척 한가했고 몇 달 만에 백수회원 8명은 데크길을 걸어서 텅 빈 숲속에 마련된 탁자와 의자에 앉아 박명익 회장이 마련한 송편과 각자 지참한 막걸리를 마시면서 10월 1박2일 나들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평 모임 장소는 신준철 회장이 예약하고 차량은 이경희, 이용규 두 대장이 동원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선착순 8~10명 모집했다. 모처럼 나들이에 들떠서 의견 제출 또한 빛발쳤고 날짜도 10월 22~23일로 확정했다. 산행 없이 곧바로 식당에 온 3명 회원이 합석했고 오랜만에 참석하신 유명식 회장에게 입원 수술시 전달하지 못했던 문병비를 전달했다. 식사 후 유명식 회장이 접대한 커피집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박2일 여행을 논의하는데 교통정리가 필요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66 회장 김용년 / 총무 정 발

66학번동기회 소식 ●●●

66동기회에서 2025년 1월 초에 명란젓(1.1kg) 발송에 이어 7월 중순경에는 감자(5kg) + 옥수수(15자루)를 동기들 50여 명에게 보냈다. 현역에서 은퇴한 동기들이다 보니 누군가에게서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무척 행복하다는 한 동기의 말이 생각난다. 마누라에게 자랑도 하고 다음에는 어떤 선물이 올까하고 기다려진다는 동기들도 있다.

3월회(회장: 최문봉) ●●●

- 날짜 : 9월 15일(월)
- 장소 : 영덕집 2층(양재역 2번출구)

김용년 회장을 비롯한 18명이 참석하여 서로의 안부와 건강을 묻고 옛날이 그리다는 동기때문에 많이 웃었다. 옛날에는 그래도 30여 명이나 나왔었는데 세월은 어쩔 수 없나보다. 오랜만에 독일에서 귀국한 양해경 동기가 비용 전액을 결제하여 참석자들은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3월회

虎球회(회장: 신경조, 총무 : 김웅한) ●●●

- 날짜 : 9월 29일(월)
- 장소 : 양재당구장

이날 김창호 선수(400점)와 신진철 선수(250점)의 결승전 경기가 열렸고, 김창호 선수가 우승, 신진철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상금은 우승자 20만 원, 준우승자 10만 원이지만 상금을 회식 때 내놓지 말라는 虎球회장의 지시(?)가 있었으니 그때 불일이다. 모임에는 신경조, 김웅한, 염수열, 김창호, 조규용, 신진철, 이병익, 이연상, 정 발 동기까지 총 9명 참석했다.



호구회

이수회 (회장 : 남효극) ●●●

- 날짜 : 9월 10일(수)
- 코스 : 남산오르미 - 남산둘레길 - 산정(식당)

지하철 4호선 명동역 3번 출구에서 집결하여 대낮 따가운 햇살과 더위를 피해 이수회 모임 처음으로 오후 4시에 만나 해거름녘 남산을 즐겼다. 이날 김용년 66동기회장이 모임 비용을 부담했다. 모임에는 김용년, 김웅한, 박창덕, 박주홍, 이병익, 최문봉, 남효극 동기까지 총 7명 참석했다.



이수회

이금회 (회장 : 이판철) ●●●

- 날짜 : 9월 12일(금)
- 장소 : 전주옛날집(양재역 2번출구)

김용년, 김장옥, 한중희, 김원울, 이철규, 박종훈, 박주홍, 박삼령, 조규용, 오익수 동기까지 총 10명이 참석했고 이날 모임 비용도 김용년 회장이 부담했다. 점점 줄어드는 참석자들을 어찌하랴? 세월이 많이 흘러 여기에 나오는 것도 얼마나 다행인지 감사할 뿐이다.



69 회장 조현용 / 총무 이영식

목이균 동기의 부인 이수인 씨를 추모합니다 ●●●

이수인 씨는 7월 19일 별세했다. 경영학과 69학번 목이균 동기의 아내이자 프로바둑 감독 목진석 씨의 어머니이다. 이수인 씨는 경영대학 교직원으로 1966년부터 경영대 송기철 학장 비서로 10년간 근무했다.

윗줄 왼쪽부터 목이균(69), 윤영준(70), 이수인씨, 김진석(69), 양재열(69)
아랫줄 왼쪽부터 장일철(70), 정형원 회장(69), 고(故) 강성동(71), 이세형(71)



1972년 상대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73 회장 신준식 / 총무 김순배

바둑모임 출범 행사 가져 ●●●

지난 7월 11일(금), 종로3가에 있는 '우리기원'에서 고경73 바둑모임 출범 행사가 있었다. 동기들 중 모두 8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이날 첫 모임에는 노대균, 박동수, 이필승, 이형중, 한 용 이렇게 5명이 참석하여 평생 갈고 닦은 기력을 겨뤘다. 경기를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뒤풀이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졌다. 신준식 동기회장이 특별히 참석하여 바둑모임 출범을 축하하고 앞으로 이 모임이 회원들 간 돈독한 우정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길 당부했다. 한편 자타가 인정하는 고수인 노대균 동기가 앞으로 모임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으며, 매월 둘째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로 했다.



바둑모임 출범

· 회원 명단 : 김규상, 노대균, 류용일, 박동수, 박성목, 이필승, 이형중, 한 용

2025년 동기회 가을행사 성료 ●●●

동기회의 가을행사를 지난 10월 24일에 가졌다. 이번 행사는 신준식 회장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과거의 낭만과 추억이 깃든 기차여행으로 정하여 부부동반으로 모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아침 일찍 용산역에서 출발한 무궁화호를 타고 2시간여 만에 홍성역에 도착했다. 홍성(옛지명 홍주)은 유서가 깊은 도시로 김좌진 장군, 한용운 시인, 성삼문, 최영 등 훌륭한 역사적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다. 오전에는 그중에서 김좌진 장군의 생가지를 둘러보았다. 명문가의 집안에서 태어난 장군은 1905년 15세의 나이에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잃자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치기



동기회 부부동반 가을행사

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토지를 나누어 주는 등 노비 해방을 실시하고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전념하면서 청산리대첩 등의 큰 승리를 이끌었다. 계절의 별미 대하구이 정식으로 점심을 하고 배로 10여 분 거리인 죽도로 건너가 2km 정도의 섬 둘레길을 걸으면서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만끽했다. 남당항으로 다시 돌아와 최근에 오픈한 홍성 스카이다이빙에 올라 천수만을 조망하면서 바다로 지는 해의 멋진 풍광을 즐기는 한편, 65m의 스카이잔도를 걸으면서 아찔한 스릴도 맛보았다. 마지막으로 인근 광천의 명소인 새우젓토굴을 둘러보고 젓갈 백반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이번 가을행사에 참석인원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으나, LA에서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 중인 장상용 동기 부부가 참석하여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면서 아쉬움을 많이 달래주었다.

74 경영회장 우갑준 / 사무총장 조형용

경영74 7월 남산걷기 (남산클럽회장 : 한호석) ●●●

· 일시 : 2025년 7월 5일 (월)

오늘도 여느 때처럼, 남산 한옥마을 입구에서 동기들이 거의 30여 명이 모여 무더위 속의 남산을 트

레킹했다. 구름이 끼어 햇빛은 별로 없어 다행이었지만 후덥지근한 상태로 걷는데 꽤 힘들었다. 13명은 집결 장소인 한옥마을에 왔고 일부는 국립극장이나 남산 정상에서 합류했고 이날 모임 인원

의 절반 정도는 12시쯤 정기총회 장소인 냉면집에서 만났다. 시원한 막걸리로 목을 축이고 시장기가 가신 다음 구자형 사무총장의 사회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장항덕 동기회장의 인사 말씀에 이어 안건으로 결산서 승인이 있었고 회장 선임이 있었다. 동기회장으로는 우갑준 수석, 수석부회장으로 정 영 동기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또한 내년 5월이나 6월(예정) 중에 일본 등 가까운 외국으로 함께 해외여행 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9월경에 새로운 집행부에 대해 전임회장들과 상의한 후에 모든 동기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총회를 마치고 식사를 맛있게 먹으며 모임을 마무리 했다. 특별히 강호갑 전 회장과 반원익 전 회장이 오찬 비용을 부담해주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린다.



우갑준 회장



조형용 사무총장



7월 남산걷기

경영74 전임 회장단, 현 회장단 상견례 모임 ●●●

· 일시 : 2025년 10월 1일 (수)

· 장소 : 모던롤랑 센트럴시티점

· 참석자 : 조철래, 반원익, 정 영, 한호석, 우갑준, 조군환, 이문세, 장항덕, 조형용(9명)

· 협의내용 :

1. 10월 4일(토) 남산모임 - 긴 추석 연휴를 감안하고 취소
2. 11월 1일(토) 남산모임 예정
3. 12월 4일(목) 경영대학 교우의 밤 참가 예정



전임 회장단, 현 회장단 모임



- 4. 내년 해외여행 계획(장소, 경비 등)은 향후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
- 5. 구자형 사무총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근조기, 경하기 관리업체, 지난 결산(6월 30일) 통장 등 인수인계 사항은 구 사무총장 부인과 협의하여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
- 6. 경영대 교우회와의 업무협약 등

76 회장 장영린 / 총무 김덕만

경영76산우회, 백두산, 고구려 유적 탐방기 (산우회장 : 손봉원) ●●●

2025년 하반기 특별 산행으로 경영76산우회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백두산과 고구려 유적지를 탐방했다. 이번 산행에는 금창국, 김상태, 나병선, 박창호, 손봉원, 양석표, 이상식, 이흥기, 임완순, 정희식, 조구희, 한호림 등 총 12명이 함께하여 웅장한 자연과 민족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백두산 북파 코스(9월 16일, 비룡폭포)

백두산 등반 코스 중 가장 먼저 개발된 북파 지역에서는 해발 2,200m에 자리한 화산 분화구 호수인 천지(天池)와 온천 지대를 둘러볼 수 있다. 장백폭포(북한에서는 비룡폭포)는 높이 약 60m로, 사계절 내내 힘차게 흘러내리는 장관을 자랑한다. 특히 화산 열로 데워진 지하수가 분출되는 온천 지대는 또 다른 볼거리다. 아침부터 흐린 날씨였지만 천지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길을 나섰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폭우로 탐방로가 폐쇄되어 아쉽게도 천지를 보지는 못하고 장백폭포만 관람할 수 있었다.



비룡폭포

백두산 서파 코스(9월 17일, 천지)

전날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맑게 갠 가을 하늘 아래 서파 코스로 향했다. 서파는 약 40분간 1,442개의 계단을 올라야 하지만, 비교적 완만하여 고산의 야생화와 백두산의 탁 트인 풍광을 즐기기에 좋다.

정상에 오르자마자 눈앞에 파란 하늘과 함께 천지의 장엄한 모습이 펼쳐졌다. 둘레 약 13km, 깊이 200m의 거대한 칼데라 호수는 그 자체로 감동이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애국가 가사가 떠오르며, 민족의 상징인 백두산을 직접 눈으로 마주한 순간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백두산 천지

고구려 졸본성과 오녀산성(9월 18일, 졸본성 세계문화유산 박물관)

여행의 마지막 날에는 고구려의 첫 수도 졸본을 찾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오녀산성과 졸본성 일대는 고구려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다. 대자연 속에서 민족의 숨결을 되새기며 여행의 대미를 장식했다.



졸본성 박물관

맺음말

백두산과 고구려 유적을 돌아본 이번 여정은 “자연과 역사, 그리고 민족의 뿌리를 되새긴 소중한 여행”이었다. 특히 천지를 직접 눈 앞에 두고 조국의 근본을 온몸으로 느낀 경험은 모든 산우회원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감동의 순간이 되었다.

고려대의 승리, 그리고 연세대와의 영원한 우정 (기우회장 : 장영린) ●●●

· 제1회 연세대 · 고려대 경영76 바둑교류전

2025년 9월 8일, 고려대와 연세대의 경영학과 76학번 동문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친선 경기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경기를 넘어, 입학 50주년을 앞둔 동문들이 함께 모여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우정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은 양교에서 총 24명의 동문이 참여하여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경기의 최종 결과는 12승 8패, 고려대의 승리! 그러나 승패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기쁨을 나누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서로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50년 동안 직접 만날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번 모임은 단순한 시합이 아니라, 잊혀졌던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고려대 교우들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경기에서 우리 교우들은 작은 준비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며 긴장과 설렘 속에 경기를 맞이했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바둑교류전

첫 번째 경기는 5대 5 무승부로 팽팽하게 시작되었고, 이어진 두 번째 경기는 고려대가 7대 3으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한껏 달궜다. 승부가 결정된 이후에도 양교 동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손을 맞잡았고,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는 오랜 친구처럼 허물없이 웃고 대화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이 이어졌다. 마치 몇십 년을 함께해온 벗처럼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이번 모임을 위해 일체의 진행을 준비하고 인도해준 정해균 동기, 이번 만남을 성사시켜준 이영일 동기, 현수막 제작 등 많은 도움을 준 김진철 동기 그리고 교류전을 승리로 이끌어준 선수들 또한 이번 행사를 위해 문덕식, 임완순, 김광윤 외 많은 고려대 동기들의 열성적인 후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경기가 끝난 뒤 동문들은 이 만남을 단발성이 아닌, 앞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전통으로 만들어 가자는 뜻을 함께 나누었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두 학교의 동문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우정을 나누는 자리가 더 자주 마련된다면, 우리의 인연은 더욱 깊고 아름답게 이어질 것이다. 연세와 고려, 영원한 친구! 오늘의 기쁨과 우정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기를 기원한다.



78 회장 김일용 / 총무 정세종

경영78 정기모임 ●●●

- 일시 : 2025년 7월 8(화) 오후 6시 ~ 9시
- 장소 : 매봉역 인근 아다하우스

경영78 동기들은 매년 7월 8일에 정기모임을 하고 있다. 올해도 7월 8일(화)에 강남 매봉역 근처 78학번 가정교육과 인치회 동기가 운영하는 아다하우스에서 모임을 가졌다. 총 27명이 참석했는데 23년 41명, 24년 36명에 이어 매년 참석인원이 건강, 가정사 등의 문제로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다. 경영78동기회의 자랑인 김동원 고려대 총장과 한윤상 교우회 수석부회장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정기모임

소규모 음악회, 전시회, 강의 등을 하는 모임 장소에서 정세종 총무가 준비한 김밥, 떡, 회, 김치전, 새우, 과일사라다 등과 김동원 총장, 한윤상 수석부회장, 한덕철 전 회장이 협찬한 와인으로 풍성하고 알찬 만찬이 되었다. 한편, 김동원 총장은 모교가 교우들의 적극적인 기부 등 열정적인 성원에 힘입어 일본 게이오대학과 와세다대학을 훨씬 뛰어넘는 대학으로 발전하였으며, 세계 30위 대학을 목표로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이날 모임에 처음 참석한 이종남 동기, 회사 일로 참석하지 못한 김일용 동기회장, 한덕철 전 회장과 김명석 동기가 각각 30만 원을 찬조한 덕분에 725,790원의 흑자를 기록하여 전액 경영78동기회 기금으로 적립했으며, 와인을 찬조하고 비용을 협찬해준 모든 동기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동기들이 음식이 맛있고 행사 장소가 모임에 집중하는 분위기여서 너무 좋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며 앞으로도 아다하우스에서 모임을 갖자고 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 노래방 시설을 활용하지 못해 동기들의 멋진 노래를 듣지 못한것이 아쉽지만 남은 김밥과 떡을 다 정리하고 9시경에 헤어졌다.

79 회장 이상현 / 총무 오성호

79친구당 태스(TAE's)컵 반기결산대회 ●●●

- 일시 : 2025년 6월 14일(토)
- 장소 : 부산 중앙동 플라틴 당구장

대회를 위해 6월 13일~15일(2박3일) 일정으로 부산 해운대에서 모였다. 호당회 장영철 회장의 알선으로 해운대의 LCT 레지던스호텔 74층에서 바다를 향해 트여있는 오션뷰를 만끽하며 일정을 진행했다.

6월 13일 - 각자 출발하고 오후에 집결하여 숙소를 확인하고 저녁식사를 위해 '소문난 대구탕'에서 대구탕, 대구뽕찜, 막걸리와 더불어 장영철 회장의 건배사로 행사를 열었다. 식후에는 운치 있는 낭만의 해변을 걸으며 젊은 시절의 추억을 되새겼다. 마침 백사장

중앙에서 버스킹을 하던 가수 '최소마'의 목소리에 끌려 계단석에 앉아 감상하고 후원금을 건으며 신청곡을 요청했다. 신난 동기들은 박수에 밀려 모래밭에 뛰어나가 가수의 노래 소리에 맞추어 춤추며 환호했다. 한 시간 정도 모래밭에 앉았다가 숙소로 돌아오려는데 갑자기 쏟아진 빗방울에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비는 밤새 창문을 때리고 해무로 가득한 밤바다를 만들어 오션 뷰를 볼 것 없게 하더니 다음날 오후까지 부산지역을 맴돌며 더운 여름의 열기를 식혀주었다.

6월 14일 - '바다마루 전복죽'에서 싱싱한 전복이 큼직하게 덩어리진 전복죽으로 배를 따뜻하게 데우고 당구대회장으로 이동했다. 14명의 선수를 4-4-3-3팀으로 나누어 각 2팀씩 본선에 진출하게 하고 8강전에서 4강전 결승전에 이르는 대회를 진행했다. 최종결선까지 진출하여 이루어진 성적은 1등 이승근, 2등 이일환, 3등 김택근, 서유창인데 시상과 더불어 찬조 물품들을 추첨으로 뽑아 나누어 가졌다. 행사 후 이동한 해운대의 '일광수산횟집'에서는 근처에 사는 정일헌이 모임에 함께하여 우의를 나누었으며 6월 13일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강의 후 오후에 합류한 구상회 교수를 위해 꽃다발 전달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해 주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근처에 있는 커다란 오픈 라이브 카페로 이동해서 일렉트릭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감상했고 우리들 또한 곡씩 좋아하는 곡을 돌아가며 선보였다. 취기가 오른 몇몇 동기는 좀 더 즐길 거리를 찾아 헤맸다.



당구대회

6월 15일 - 10시까지 늦잠을 자고 일어나 11시에 체크아웃하고 '금수복국'에서 복국으로 해장하며 '아점'을 때운 후 차량이나 KTX를 타고 귀경길에 올랐다. 열차팀은 부산역 앞 차이나타운에서 '신발원'의 만두를 나누는 등 지역의 맛집 기행까지 즐겼다. 이번 행사를 위해 수고한 집행부 이성훈 회장과 서유창 총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후원해주 많은 동기들에게도 감사드린다.

고경79산우회 거제도 여행 ●●●

· 일시 : 2025년 6월 27일(금) ~ 28일 (토)

24명의 동기들은 새벽부터 28인승 전세 리무진버스로 5시간의 주행 뒤에 도착한 거제도 시방리 선착장에서 승선하여 10분 남짓의 운항 후에 이수도에 12시에 도착했다. 이수도 '나드리펜션'에서 해산물로 가득한 점심을 먹고 뜨거운 햇살을 피해 숙소에서 쉬거나 3km정도의 섬 트레킹을 하면서 삼삼오오 남도의 바다 풍경을 즐겼다. 저녁식사도 역시 풍성한 해산물로 가득한 생선회와 더불어 막걸리와 소주, 맥주 등의 음료병이 정신없이 쌓여갔다. 일부는 부풀어 오른 배를 소화시키기 위해 다시 섬 주변의 트레킹 코스를 따라 저물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며 산책하기도 했다. 숙소에서는 공수해 온 와인을 나누며 소위 2차 음주의 분위기에 젖어 자유를 만끽했다. 몇 명은 펜션에서 대여해준 노래방기기 앞에서 옛 추억의 애절한 노래와 분위기를 업시키는 노래가 어우러져 밤이 깊어 가는 줄을 모르고 있었다.



거제도 여행(망산에서)

다음날 아침 역시 푸짐한 해산물로 지난 저녁의 해장을 풀고 짐을 싸서 이수도를 나와 한 시간 정도의 거리를 달려 명사해수욕장에



도착했다. 여기에서 두 팀으로 나뉘어, 1팀 8명은 망산으로 산행하고, 남은 2팀 16명은 명사 해변을 거닐었다. 망산행을 택한 산행팀은 초입부터 쏟아지는 땀방울에 온몸을 적시며 가파른 1.7km의 구간을 쉬지 않고 올랐다. 해무로 가득한 바다 풍경, 특히 다도해를 구경하지 못한 채 하산하는 도중에 잠시 해무가 걷히는 바다의 정경을 바라보았다. 명사 해변을 택한 트레킹팀은 해무가 걷히는 해금강을 배경으로 사진 찍으며 바다 풍경에 취했다. 거제 명물로 바람의 언덕이 보이는 카페인 '과르네르'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원한 창가에 앉아 남도의 뜨거운 열기와 습한 기운을 달랬다. 산행팀과 트레킹팀이 12시 반경에 함께 모여 출발했다. 점심으로 택한 장소는 통영항의 '충청도 회초장'. 역시 해산물로 구성되어 싱싱한 광어, 송어, 고등어, 멸치, 멍게, 해삼 등으로 이어지는 바다의 만찬은 또 한 번의 포식을 가져다주었다. 몇 명은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조기, 민어, 오징어, 멸치 등의 건어물들을 챙겼으며 몇 명은 꿀빵과 복숭아 등을 사서 동기들과 나누었다.

귀경하여 서울에 도착한 7시 반경, 양재의 코다리찜 식당에서 철판 해물탕을 저녁 식사로 나누면서 이번 여행의 대미를 장식했다. 1박 2일 동안 다섯 끼를 해산물에만 의존했던 식사로 인하여 실컷 먹고도 몸무게는 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했다. 수고해준 산우회장 장덕윤과 총장 김명국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의 성공적인 여행을 위하여 찬조하여 준 많은 동기들에게 감사드린다.

고경79산우회 7월 정기산행 ●●●

· 일시 : 2025년 7월 25일(금)

폭우가 지나고 폭염이 한반도를 찌우는 금요일. 13명의 회원들은 아침 일찍 햄버거를 나눠 먹으며 가평의 조무락계곡을 향하여 렌트카를 빌려 출발했다. 10시께 도착한 램원펜션에 짐을 풀고 석룡산의 조무락계곡을 따라 계곡길을 올랐다. 계곡길의 물을 가로지르며 시원한 물에 발을 적시고 쉬엄쉬엄 오르며 준비한 과일로 속을 달랬다. 2km 남짓 오르니 화악산 방향으로 복호등폭포가 보인다. 호랑이가 엮드린 모습의 폭포라고 한다. 전망대에서 보다가 한두 명씩 폭포 아래 가까이 다가서서 사진을 찍으며 약간의 성인 음료를 한잔씩 나누며 그늘 아래에서 자연이 가져다 주는 에어콘(?)바람을 쏘이며 쉬었다. 10분만 오르면 쌍용폭포이건만 작열하는 자외선에 노출되기를 거부하며 바로 하산했다. 산행거리 7km, 1시께 도착한 램원펜션은 조무락계곡에서 흘러 내려오는 맑고 투명한 물들이 옆의 시냇가를 흐르고 있었다. 허기가 오른 뱃속을 위하여 준비한 쇠고기를 프라이팬에 구우며 막걸리와 채소를 곁들여 먹으며 자연에 감사하는 맘으로 즐거움을 만끽했다. 드디어 물속으로 뛰어들 시간! 차갑고 맑게 흐르는 시냇물에 몸을 적시고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속에서 수영도 즐기고 물장구도 치고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 마시며 포석정의 향취를 음미했다.



복호등폭포 앞에서

물놀이 후에는 바둑과 오수를 즐기며 긴긴 여름날의 하루해를 보냈다. 간식으로 준비한 오리탕도 여름 보양식으로 안성맞춤이었다. 이래저래 뉘엿뉘엿 태양이 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출발하여 '네자매 평강막국수'에 들러 수육과 막국수로 저녁 식사를 대신하고 서야 귀경하여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금번 행사를 위하여 애산 산악회 회장 장덕윤, 총장 김명국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렌트카 운전 봉사해 준 김명국, 김정태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또한 '네자매의 평강막국수'에서 수육과 막걸리, 메밀막국수를 협찬해준 서학석 고문에게도 감사드린다. 함께한 모든 동기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9월 정기모임 ●●●

- 일시 : 2025년 9월 8일(월)
- 장소 : 인사동 하나로회관

뜨거운 열기가 한반도를 지치게 만들던 여름의 막바지에 접어든 날. 장년의 경영79호랑이들 37명은 종로 인사동에 모였다. 곱창 전골 정식과 버섯전골 정식을 안주삼아 동기회에서 따로 구입한 소백산 막걸리로 목을 축이며 오랜만에 만나서 지난 소회와 함께 왁자지껄 떠들며 안부를 교환했다. “더위야 가라! 오늘은 좋은 날!”이라는 건배사로 이상현 회장이 개회 선언을 한 후로 마침 불참한 골프회장을 제외하고, 산악회, 당구회, 축구회의 대표들이 나와서 향후의 계획들을 발표했다. 산악회에서는 8월 말에 있었던 일본 산행 후기와 가을을 맞아 지방 원정 산행을 기획하고 있음을 보고했고, 당구회에서는 호당회 주관의 학번 대항 당구 대회에서의 쓰라린 예선탈락과 향후 있을 당구 고연전에 대해 보고했다. 축구회에서는 유럽 프리미어리그 경기 직관 여행과 9월 20일에 예정된 고연전 럭비, 축구 경기 응원 단위 모집에 관해 보고했고, 한해를 쉬었던 문화회의 차기 회장 내정자인 진용주가 나서서 내년부터 부활하는 문화회의 활성화를 위해 간단한 계획을 공지했다.

소모임들의 보고가 끝난 후에 자식의 결혼을 앞둔 김상해, 김수곤, 김명국이 나서서 결혼식에 와서 축하와 격려를 바란다는 청첩의 변으로 발언했다. 얼마 전 출근길에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큰일 날뻔했던 이재우의 얘기가 회원들의 공감을 받았다. 젊은 세대가 아닌 만큼 안전과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였다.

모임을 하기 전에는 송상호가 참여해서 세 점의 미술작품을 전시해놓은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고대서화회 출신 교우들의 작품도 감상하며 몇몇 동기들은 방문하여 방명록을 남겼다. 모임을 시작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 못다 한 이야기들은 다음 기획에 하기로 하고 9월 정기모임의 단체 사진을 찍고 마무리했다.



9월 정기모임

2025 정기 고연전 관람 ●●●

KUFC79주관으로 2025년 60주년을 맞는 고연전 둘째 날 럭비와 축구를 관람하며 응원전에 참여했다. 서종산 축구회장이 아침 일찍 경기장 응원석으로 가서 자리를 찜하고 동기들을 기다렸다. 전날 야구와 농구에서 압승하고 빙구에서 석패를 한 상황이라 여유롭게 자리를 잡고 관람했다. 11시에 시작한 럭비는 시작과 동시에 트라이를 해서 전반에 21:7로 앞섰다. 후반에 들어서는 쉽지 않은



정기 고연전 관람

밀고밀림에 트라이를 두 번 당했지만 고려대가 21:19로 승리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축구 경기는 패스워크에서 밀리면서 초반부터 1골을 먹었고 후반에 접어들어 석연치 않은 심판판정으로 패널티킥이 주어졌다. 판정불복으로 10여 분간 경기가 중단되었다가 재개했지만 심판 판정과 전력에서 밀린 경기를 뒤엎지를 못하고 0:2으로 패했다.

종합전적은 3:2로 종합우승은 했지만 마지막 피날레인 축구에서 이겼으면 하는 기대는 욕심이었을까? 이로써 정기고연전이 1925년



일제치하 연식정구에서 시작되어 1965년 축구, 야구, 농구, 럭비, 아이스하키 5종 경기로 확대되어 진행되어온 이래 통산전적이 21승 11무20패로서 연세대를 앞서고 있다. 2025년 고려대 개교 120주년을 맞아 교우들이 여기저기서 애쓴 결과일 것이다. 더구나 해외 교우 초청행사까지 겸비했으니 오죽하랴.

81 회장 송재현 / 사무총장 신동훈

고골회 하반기 골프대회 개최 ●●●

- 일시: 2025년 9월 3일(수)
- 장소: 몽베르CC

몽베르CC 회원제 코스에서 22명의 동기들이 참여하여 6팀으로 나누어 즐겁게 게임을 즐겼다. 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후반에는 시원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좋은 날씨 속에 여름을 무사히 이겨낸 동기들과 즐거운 덕담을 나누며 즐겁게 게임을 마무리하고 골프장 내 식당에서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며 즐거운 고골회(경영81 골프모임) 행사를 마쳤다.



고골회 9월 모임

909 회장 최창규(경영90)

909 모임 ●●●

- 일시 : 2025년 8월 27일(수)
- 장소 : 여의도 진가

96학번 진영우 교우가 운영하는 여의도 진가에서 98학번 교우들을 격려하기 위한 909모임을 가졌다. 909 외에도 여의도에 근무하는 009 교우들도 참석했다. 싱가포르에서 온 81학번 이충진 교우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가장 막내 학번으로 사우디에서 온 재학생 24학번 알라마가 모임에 참석했다. 97학번 김영일의 사회로 각 학번의 교우들이 차례대로 일어나 자기소개를 하며, 유쾌한 분위기에서 환담을 나눴다. 1차 모임을 마치고 2차는 9명이 남아 아쉬운 마음을 달랬다.



98학번 격려 모임

- 참석자 : 이충진(81), 최창규(90), 김현수(93), 문향대(93), 윤희도(93), 최길상(93), 양정인(95), 이규원(95), 박원태(96), 주민근(96), 진영우(96), 김영일(97), 김경태(98), 송명수(98), 신승현(98), 이진형(98), 조중관(98), 한경선(98), 김효찬(99), 남광민(99), 엄수형(99), 유진(00), 신현수(03), 민병일(05), 황세진(07), 신재국(10), 이현주(10), 홍유정(10), 배은빈(18), 안가을(18), 안수혜(18), 알라마(24) (총 32명)

009 역삼동 모임 ●●●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 장소 : 역삼동 이도곰탕

역삼동에서 95학번 이규원 대표가 운영하는 이도곰탕에서 009 모임을 진행했다. 009 모임은 00학번부터 09학번까지의 교우들이 함께하는 친목 모임으로, 이번 자리에는 00학번부터 08학번까지 다양한 기수의 교우들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비록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05학번 이정우 교우가 뉴트로픽랩 음료를, 09학번 임용철 교우가 마이노멀 제품 다수를 협찬해 주어 모임이 한층 즐겁고 풍성했다. 다음 모임은 10월 20일(월), 96학번 진영우 대표가 운영하는 여의도 소재 진가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늘 모임을 위해 협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삼동 모임

- 참석자 : 우동철(00), 천영석(00), 고한열(01), 김선종(02), 장문정(02), 금현애(04), 백철운(04), 최민식(05), 박지훈(06), 황세진(07), 최상훈(08), 강용구(10), 장세명(10)

교우회보 <호상>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교우회보 <호상>은 교우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알고 싶은 교우님의 소식이나 모임 소식,
계재를 원하는 수필, 시, 칼럼, 여행기, 만화,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룬 글 등의
자료를 보내주시면 교우회보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TEL 02-922-3762

· FAX 02-922-3763

· E-MAIL kubs@kubs.or.kr



경영대학 120주년, 미래 60년을 논하다



경영대 120주년 기념
포럼 행사(포스터)

또한 국내 30대 기업 인재개발원장을 VIP 손님으로 초대하여 미래 사회의 경영과 경영학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동섭 교�회장은 “오늘 뜻깊은 120주년을 맞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일은 어렵지만, 변할 것과 변하지 않을 것을 성찰하는 시도가 의미 있는 방향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이겨낼 역량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라고 전했다.

120년의 발자취를 기념하는 토크콘서트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 앞으로 60년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라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개교 12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6일(금) ‘Mapping the Future: Business Society in 60 Years’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행사는 현대자동차경험관 3층 플로팅 플라에서 진행되었고, 이동섭 경영대 교�회장이 행사를 여는 축사를, 신호정 위원장이 전체 사회를 맡았다.

질문을 던졌다. 경영대학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며 새로운 도전의 문을 열었다.

문명사의 흐름 속에서 본 경영학의 길

첫 번째 순서는 역사적 성찰이었다.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조영헌 교수는 자신이 집필한 <경영학의 길—문명사로 읽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120년>을 소개하며, “역사 속에는 늘 전환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큰 변화가 뒤따랐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1905년 과거시험의 폐지를 동아시아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해석하며, 이를 경영학의 출발점으로 바라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내부자가 아닌 외부자의 객관적 시각에서, 단순한 연혁 나열이 아닌 학술사적 관점으로 문명사의 맥락 속에서 경영학을 조망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상상력, 무대 위에 펼쳐진 60년 후의 비즈니스

이어진 무대에서는 ‘Mapping the Future’를 주제로 학생들의 상상이 펼쳐졌다. 사전 제출된 영상 심사를 통해 결선에 오른 다섯 팀은 교육, AI, 우주, 죽음, 해양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를 통해 60년 뒤의 사회와 비즈니스를 그려냈다.

최종 우승은 ‘바다이움’ 팀에게 돌아갔다. 경영학과 이준공군 학생과 영어영문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이 팀은 “21세기 말 잠겨가는 한반도”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세계 최초의 해상도시 ‘Oceanus Korea’ 구상안을 제시했다. 주거단지, 산업단지, 연구단지, 생활 인프라가 유

기적으로 연결된 친환경 해상 신도시는 기후위기 시대 인류가 생존과 번영을 동시에 거둘 해답으로 주목받았다. 심사위원단은 “기후 변화라는 전 지구적 과제를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도시 모델로 풀어냈다”라며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 결선 관객 투표에서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시를 활용한 교육 혁신을 제안한 ‘Eduvantage’ 팀 ▲기업 경영 패러다임 속 시의 역할을 탐색한 ‘V’ 팀 ▲죽음을 준비하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 ‘Get셋Go’ 팀 ▲우주기술을 활용한 미래 비즈니스 전략을 구상한 ‘PLAN D’ 팀이 각자의 비전을 공유했다.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경영대학이 미래 사회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축사 전하는 이동섭 회장



최종 우승한 '바다이음'팀

산업과 학계, 미래를 함께 그린다: 전문가 패널 토크

2부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크가 이어졌다. 곽태승 현보 대표, 김민정 경영대학 교수, 김희천(경영79) 롯데인재개발원장, 신선화(경영95) UCK 대표, 우준호(경영99) 우애프트너스 대표, 이동건(경영05) 마이리얼트립 대표, 채준 한국경영대학원협의회 이사장(서울대 경영대학 학장), 최재화(경영04) 번개장터 대표가 함께했다.

신선화 대표는 “60년 전 기업 10곳 중 한 곳만이 살아남고, 대부분은 20년을 넘기지 못한다”며 “삼성이 처음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주변의 회의적 시선을 넘어섰듯, 아래로부터 의견이 자유롭게 올라올 수 있는 환경과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기업 생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천 원장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창업자의 마인드로 사고하는 인재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학습할 때 진정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고, 이러한 환경이야말로 미래 인재 양성의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김민정 교수는 “시 시대에는 정보와 예측 능력이 모두 평준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문제를 나만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창의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차별성을 만들 것이며, 혁신의 중요성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는 김언수 학장의 진행 속에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졌으며, 미래 사회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공유되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제안과 전문가들의 경험이 어우러지며, 경영대학이 앞으로의 6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무리되었다.

미래를 건배하다: 인도어 가든 파티

토론의 열기는 지하 1층 인도어 가든 파티로 이어졌다. 사회는 나현승 부학장이 맡았으며, 이동섭 교우회장과 김희천 롯데인재개발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번 가든파티는 학생·교수·교우·산업계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120년의 역사와 미래 60년을 함께 논의한 토크콘서트를 네트워킹과 교류의 장으로 확장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경영대학이 지닌 학문적 전통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동시에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영신문 713호 발취

글로벌 명문 대학들과 손잡은 KUBS...세계속 경영대로 도약 전 세계 33개국 114개 대학과 국제 교류 파트너십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최근 미국·유럽·아시아 주요 명문 대학들과의 교류 협정을 잇달아 체결하며 국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2024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신규로 체결했거나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국제 파트너십은 총 9건에 달한다. 특히 이들 협정의 상당수가 미국 내 학부 경영대학 순위 상위 20위권 이내에 포함된 명문 대학들과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 대학들과 다양한 형태의 교류 협정을 새롭게 구축했다. 학부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버지니아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 ▲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와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카네기멜런대학교(Carnegie Mellon University)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캠퍼스(UC San Diego)와는 일반적 국제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학술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MBA 과정 교환 협정으로는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와 협정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프랑스의 ▲파리 도핀대학교(Universit  Paris Dauphine-PSL) 홍콩의 ▲홍콩시티

대학교(City University of Hong Kong) 등 유럽 및 아시아 대학들과의 교류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현재는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와의 협정 체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은 학부, 일반대학원 및 MBA 교환, 공동연구 등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글로벌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존스홉킨스대학교(The Johns Hopkins University)와는 본교 경영대학 학부생이 글로벌 +1 프로그램을 통해 동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최대 50%의 장학금을 받도록 혜택을 주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팀 관계자는 “단기간에 이처럼 많은 수의 우수 해외 대학들과 교류 협정을 체결한 것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국제적 위상과 교육 역량이 그만큼 높이 평가받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수준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현재까지 전 세계 33개국 114개 대학과 국제 교류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경영신문 712호 발췌



98학번 교우와 가족, 모교에서 하나 되다 KUBS 98 Family Day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8월 23일(토) LG-POSCO경영관 안 영일 홀에서 'KUBS 98 Family 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98학번 교우와 가족들을 초청해 교우 간의 우정을 확인하고, 다음 세대와 함께 모교의 변화를 체험하도록 준비했다.

김언수 경영대학장은 환영사에서 "98학번 교우님들의 재학시절에는 본관만 있었을텐데, 지금은 캠퍼스가 많이 달라졌다"며 "오늘의 고려대 경영대학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교우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고 전했다. 김 학장은 "졸업한 지 40년이 되었지만, 단 한 번도 고려대 경영을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었다"고 덧붙이며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김평국(경영89) 부회장은 "오늘 하루 동기와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교우들을 격려했다. 98학번 한경선 교우는 "교우회 활동을 하면서 98학번이 모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족과 함께 모교에 다시 오니 감회가 새롭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후에는 경영대학의 발전사를 담은 영상 상영이 이어져, 참석자들이 함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펼쳐졌다. 90년대 대학 새내기들의 일상을 담은 화면이 나오자 교우들은 당시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의미 있는 순간을 공유했다. 경영대학의 오늘을 소개하는 순서에서는 전액 기부로 건립된 LG-POSCO

경영관과 현대자동차경영관을 비롯해 크게 달라진 캠퍼스를 소개했다. 큐브 홍보대사가 경품이 걸린 퀴즈 이벤트도 중간 중간 진행해 행사 분위기를 한층 활기차게 만들었다.

오찬 후에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려대 응원가를 함께 불렀다. 고려대학교 응원단의 선창에 맞춰 '젊은 그대', '고래 사냥', '뱃노래' 등이 울려 퍼지자 교우들은 응원 동작과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학창 시절의 추억을 되살렸다. 98학번이 재학중에는 없었던 응원곡 '민족의 아리아'도 새롭게 배우며 흥을 더했다. 이날 응원가 제창은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순서로 교우와 가족 모두가 하나되는 특별한 장면으로 남았다.

뒤이어 진행된 '캠퍼스 투어'에서는 교우와 자녀들이 함께 교정을 둘러보며 달라진 모교의 모습을 체험했다. 참석자들은 "오랜만에 교정에서 웃고 즐길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특히 가족들과 함께해 더욱 소중한 하루였다"고 전했다. 경영신문 713호 발취





조경 리뉴얼로 산뜻해진 중앙광장 개교 120주년 맞아 캠퍼스 새단장

1,592명이 함께한 벤치 기금, 조경공사 핵심 재원으로 활용

(왼쪽부터) 원정연 관리처장, 이정원 총학생회장, 윤성택 연구부총장, 정순영 교무부총장, 김동원 총장, 전현주 여자교우회장, 정세종 78 동기회 총무, 홍소자 교수

모교 정문 풍경이 한결 더 간결하게 새단장을 했다. 중앙광장 조경공사 준공을 기념하여 7월 25일(금) 오전 10시 인문사회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준공식이 열렸다.

해당 조경공사는 개교 12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모두에게 열린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준공식에는 김동원 총장을 비롯해 정순영 교무부총장, 윤성택 연구부총장, 심동철 총무처장, 원정연 관리처장과 이정원 총학생회장, 기부자 등 주요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다.

약 6개월 반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공사로, 중앙 잔디광장과 양쪽 소나무 숲이 시각적으로 연결되며, 캠퍼스 경관의 연속성과 개방성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수목 및 잔디 식재 △벤치와 데크 구조물 등 새로운 휴게시설 설치 △분수대 정비 △가로등, 정원등, 수목투사등 설치 등을 통해, 보다 쾌적한 캠퍼스 환경이 조성됐다.

특히, '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벤치 기부 캠페인에는 총 1,592명의 후원자가 참여해 약 6억 7천만 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돼, 조경공사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됐다. 학교 측은 감사의 의미로 새롭게 마련된 벤치에 기부자들의 이름을 각인했다.

행사에서 김동원 총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조

성된 중앙광장은 국내 최초의 대학 캠퍼스 지하 개발을 통해 대학 공간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라며 "이번 조경공사는 새로운 120년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이정원(경영22) 총학생회장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간에서 추억을 쌓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총학생회는 김동원 총장에게 감사 편지를 전달했으며, 이어 테이프 컷팅식과 축하 분수 쇼가 진행됐다.

고려대학교는 개교 120주년을 맞아 'Next Intelligence'를 슬로건으로, 개발·교육·연구·행정·인프라 분야에 7,000억 원을 투자해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 나아가 2035년 세계 30위, 2040년까지 연구 경쟁력 세계 20위 목표를 추진 중이다.



조경공사 준공식



개교 120주년·고연전 60주년 맞아 해외 교우 120여명 초청 행사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개교 120주년과 정기 고연전 60주년을 기념해 해외 교우들을 모교로 초청, 함께 고연전을 즐기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일본, 호주 등 9개국에서 약 120명의 해외 교우가 참석했다.

고려대는 지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캠퍼스 투어 ▲건강검진 ▲특강 ▲박물관 특별전 관람 ▲교우회 네트워킹 행사 ▲고연전 5개 종목 경기 참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교우들이 모교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김동원 총장은 환영사에서 “세계 각지에서 모교의 이름을 빛내고 계신 교우들을 고연전에 모신 것은 학교의 성취를 함께 나누고, 다시금 하나 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함”이라며 “해외 교우 여러분은 고려대의 자랑이자 든든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해외 교우는 “학생 시절의 열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후배들과 함께 응원하며 모교의 발전을 직접 체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고려대는 이번 해외 교우 초청 행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 세계 교우들과 학교의 발전상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개교 120주년과 고연전 60주년을 함께 기념하며 모교와 교우가 하나 되는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한투스퀘어 준공 테이프 커팅식

학생회관 ‘한투스퀘어’ 준공식 개최... 학생 자치와 교류의 허브로 재탄생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9월 29일(월) 오후 2시 새롭게 리모델링된 학생회관 ‘한투스퀘어’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본 준공식에는 고려대 김동원 총장과 오태균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승명호 교우회장을 비롯해 정순영 교무부총장, 윤성택 연구부총장, 박현숙 학생처장, 원정연 관리처장 등 교무위원과 학생 약 100명이 참석해 한투스퀘어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학생회관 리모델링은 고려대학교 개교 1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는 노후된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원활한 자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학생식당도 함께 재정비해 학생 복지를 높이고자 했다.

한투스퀘어는 1971년에 준공된 기존 학생회관을 리모델링해 지하 1층, 지상 6층의 연면적 6,355㎡ 규모로 새롭게 조성된 공간이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중앙계단 철거 및 선큰광장 조성 ▲공간 재배치 및 인테리어 공사 ▲창호 교체 ▲측면 경사로·접자블럭·접자안내판 확충 ▲노후 전기·소방 설비 교체 ▲에너지 절감형 설비 도입 등이 진행됐다.

이날 준공식에서 김동원 총장은 “한투스퀘어가 학생들의 청춘을 담아내는 광장이자, 미래를 향한 힘을 기르는 터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무엇보다 이 공간은 선배들의 지원으로 완성된 만큼, 학생들은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태균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은 “한투스퀘어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배우며 도전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도전하는 고려대 학생들의 열정이 세상을 움직일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승명호 교우회장은 “이번 학생회관 리모델링은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힘을 모아 만든 소중한 성과”라며, “한투스퀘어는 학생들이 교류하며 성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리모델링은 한국투자금융지주와 동화그룹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이를 기념해 학생회관은 ‘한투스퀘어’, 선큰광장은 ‘동화자연마루’라는 이름을 얻었다. 한투스퀘어는 80여 개 중앙동아리와 총학생회를 비롯한 다양한 학생자치기구가 함께 호흡하며 협력과 도전의 문화를 키워가는 공간이 될 것이다.

www.korea.ac.kr



교우들이 공연한 개교 120주년 기념 연극 '코리올라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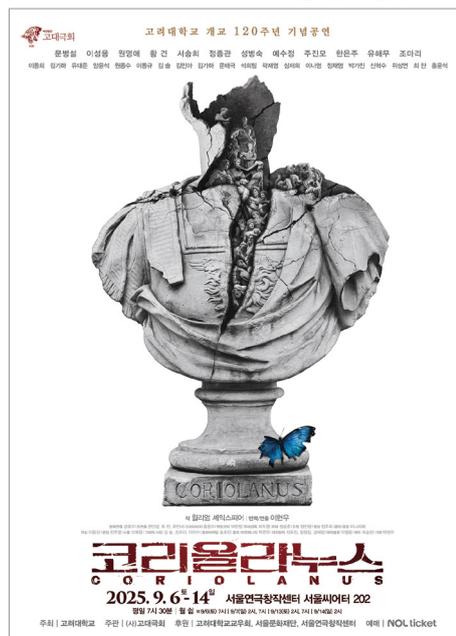
고려대학교에서 주최한 개교 120주년 기념 연극 '코리올라누스'를 교우들과 관객들의 성원 속에 막을 내렸다.

이 작품은 지난 9월 6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씨어터202에서 10회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연극단체인 고대극회(회장 조승헌·법학 83)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고려대학교 교우회,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창작센터가 후원했다.

'코리올라누스'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남긴 마지막 비극이다. 셰익스피어 전문가인 순천향대 영미학과 이현우 교수가 연출하고 이영훈(사회79) 교수가 제작총괄을 맡았으며, 홍창수 고려대 미디어문예창작과 교수가 드라마터지로 참여한 연극 '코리올라누스'는 기원전 5세기경, 한 로마의 귀족 카이우스 마르티우스 장군이 볼스키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코리올라누스라는 칭호를 얻으며 최고 권력을 얻고 차기 지도자로 거론됐지만, 정적들의 음모, 민의를 살피지 못하여 로마에서 추방된다. 이후 볼스키족과 손을 잡고 로마를 공격하게 되는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풀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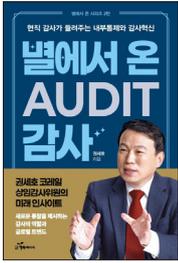
원로 배우 예수정(독문73)과 성병숙(임학73)이 특별출연한 이 무대는 73학번부터 신입생 25학번까지 50년에 걸친 세대를 아우르며 고대극회 선후배 배우들의 시너지를 통해 모교 12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코리올라누스 연극 포스터



현직 감사가 들려주는 내부통제와 감사혁신

별에서 온 감사(Audit)



서명 별에서 온 감사(Audit)
 저자 권세호(경영87)
 출판사 행복에너지
 출판일 2025.7.10.

〈별에서 온 감사(Audit)〉는 오랜 기간을 공공기관 감사와 이사를 지내고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상임감사위원을 맡고 있는 권세호 교우가 들려주는 조직의 내부통제와 감사혁신에 관한 이야기다. 아직도 많은 조직이 감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대전역 성심당 이슈를 해결한 케이스와 독일 와이어카드 가짜 회계 사건,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 등 몇몇 사례를 들어 내부통제와 청렴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또한 글로벌 감사 트렌드, AI 감사 기술의 고도화, 내부 통제시스템의 작동 원리 등 감사의 역할을 폭넓게 다루면서 제대로 된 감사는 조직의 가치를 보호하고 지속가능성을 지킨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조직의 진정한 발전과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시할 것이다.

미디어 경영과 AI

미디어 경영과 AI 1·2



서명 미디어 경영과 AI 1·2
 저자 알렉스 코녹
 번역 이청기(경영79)
 출판사 한올아카데미
 출판일 2025.8.25.

옥스퍼드대 미디어·AI 전문가인 알렉스 코녹 박사가 저술한 〈미디어 경영과 AI〉의 한국어판이 이청기 교우의 번역으로 2권으로 나누어 출간됐다. 1권에서는 1부 '원칙'과 2부 '플랫폼'을 2권에서는 3부 '제작자'와 4부 '개척자'로 구성됐다. 개발-제작-유통-수익화의 4단계 가치 창출 모델을 14개의 미디어 분야에 적용하며 AI와 디지털 전환이 각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한국의 '복면가왕'과 나이지리아 제작사 에보니라이프 등 대륙별 성공 사례를 통해 영미 중심주의를 넘어선 AI시대 미디어 산업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해졌는지 증명한다. 또한 이 책은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파괴와 창조성의 양면성을 언급하며 AI가 가져오는 기회와 위험을 구체적인 사례로 정리했다. AI에 대한 기술적 환상,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균형잡힌 시각으로 AI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한계를 인식하고 인간과 AI협업 모델을 현실적으로 제시하며 새로운 미디어 전략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서명 감자의 꿈
저자 유성철(경영81)
출판사 이서원
출판일 2025.6.30.

감자의 꿈

〈감자의 꿈〉은 저자 유성철 교수가 서울살이를 접고 2017년부터 강원도 원주 문막에 살며 자연과 주변에 일어나는 일상을 성찰하며 시조로 담아낸 시집이다. 길고양이의 설움, 돼지의 비극적인 삶, 야학 청소년들의 희망 등 세상의 어렵고 약한 존재를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 범람하는 말의 홍수 속 소리 없는 울림의 가치를 전한다. 토속적이고 예스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시조의 깊이를 더했으며 마치 땅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견디며 단단한 꿈을 키워내는 감자처럼 독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의지를 갖고 '나를 찾아가는 길'을 발견하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서명 경영학의 길
저자 조영현(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출판사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25.9.26.

경영학의 길

읽는
 교 경영대학 120년

〈경영학의 길〉의 가장 큰 특징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역사가 경영대 내부 구성원이 아니라 역사학자인 외부인의 시각에 의해 서술된 점이다. 저자는 “1905년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이재학’의 의미, ‘경영’이라는 개념에 대한 역사적 이해, 독일과 일본에서 처음 경영학이 발흥하던 단계에 대학에서 ‘경영학자’들이 받았던 열시와 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문으로 경영학을 만들었던 불굴의 의지, 한국 경영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일본·독일·미국 경영학의 영향, 한국 경영학의 발전이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과 궤를 같이한 여정,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선구적 시도들과 세계사 흐름과의 동시성,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회적 요청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진화하는 경영학의 혁신성”에 주목하여 경영대학 120년의 페이지를 채워 냈다고 밝힌다. 한국사와 세계사의 맥락 속에서 경영대학의 발자취를 서술하면서 고려대학교 경영학 연구·교육의 역사를 학술사적, 교육사적, 그리고 ‘문명사적으로’ 재조명하고자 한 역사학자의 통찰은 학과 역사의 단순한 연대기적 정리가 줄 수 없는 독창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미래를 보는 큰 그림

위험한 현장은 드론이 먼저 살피고
잠재된 위험은 AI가 먼저 감지하며
사람의 안전은 VR로 준비하는
디지털 트윈이 만든 미래의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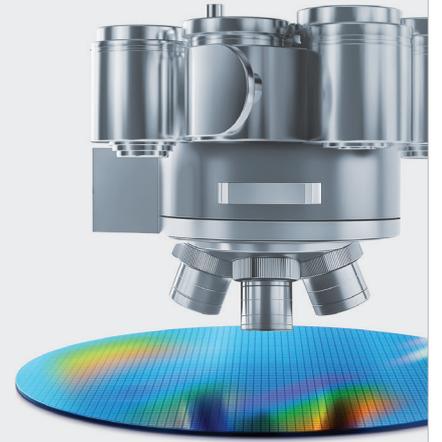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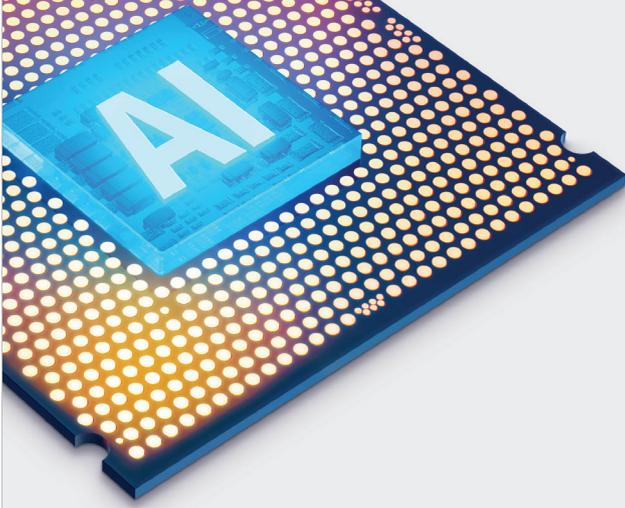


데이터로 예측하며
기술로 안전을 지키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기반의 기술 혁신까지

GS칼텍스가 DAX로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DAX

GS칼텍스의 디지털 & AI 트랜스포메이션(DAX, Digital & AI Transformation)은 디지털과 AI가 함께 발전하는 관계로 DX와 AX를 통합한 개념입니다. DAX는 디지털 기반을 넘어 AI를 통해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이고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혁신의 여정입니다.



HELLO TOMORROW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기술의 혁신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한계가 없는 내일,

산업 환경의 한계가 없는 내일,

첨단 기술의 한계가 없는 내일입니다.

두산은 오늘도, 세상의 기대를 넘어

한계가 없는 내일을 위한 도전을 이어갑니다.



DOOSAN



미래를 향한 일진의 혁신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진은 글로벌 No.1 자동차 휠 베어링 메이커로서
지난 5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 하겠습니다



- 휠 베어링 ● 트랜스미션 베어링 ● Axle Roller 베어링 ● EV모터 베어링 ● 초경량 베어링
- 산업용 베어링 ● Truck&Trailer 베어링 ● Chassis & Suspension ● SWG & SI Module ● AMR 휠 구동 시스템

휠 베어링과 차시부품에서 산업용 베어링, 로봇 부품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전 세계 고객들과 함께 합니다

ILJIN

국내법인 | ILJIN GLOBAL • ILJIN GLOBALHOLDINGS • ILJIN BEARING • ILJIN CORP • BEARING ART

해외법인 | 미국 ILJIN USA • ILJIN AMERICA • ILJIN ALABAMA 중국 ILJIN TIANJIN • ILJIN BEIJING • ILJIN CHONGQING • ILJIN JIANGSU • ILJIN SHANGHAI

유럽 ILJIN GmbH • ILJIN MOTION & CONTROL GmbH • ILJIN SLOVAKIA 인도 ILJIN INDIA • ILJIN GLOBAL INDIA

판매사무소 | PARIS (FRANCE) • TURIN (ITALY) • PUNE (INDIA) • BEIJING (CHINA) • YOKOHAMA (JAPAN) • SAOPAULO (BRAZIL)

일진그룹 본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27 Tel 02-553-1795 Fax 02-566-5621 www.iljin.com

일진그룹 회장 이동섭 (경영89)